

이달의 이슈 3 **창조경제와 바이오산업, 바이오 경제**
이민석(한국바이오협회 전략기획실장)

10 **서울의 미래,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남도현(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과 과장)

생생리포트 17 **공공임대주택과 소셜믹스**
오정석(SH공사 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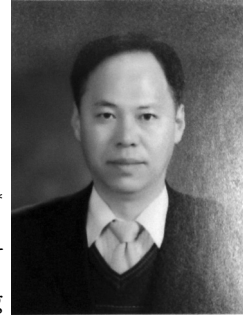
인포그래픽스 29 **서울 바이오산업의 현주소**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43 **요 약**
45 **생 산**
47 **소 비**
48 **고 용**
51 **물 가**
52 **부동산**
54 **금 융**
62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부록 67 **통계표**

창조경제와 바이오산업, 바이오 경제



이민석*
한국바이오협회 전략기획실장
superlee63@koreabio.org

1. 바이오산업의 정의와 필요성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병장수에 대한 욕망이 증대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 질환의 증가, 진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 재정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질병 치료 중심 보다는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하고 있고. 지구의 환경오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발달, 온난화, 석유 자원의 고갈 등에 대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 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경제학의 개념 중 갈때기 이론에서부터 진화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개념들이 각 분야 특히 바이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생화학 학사,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
- 현) 한국바이오협회 전략기획실장
- 현) 바이오 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현) 서원대학교 식품공학과 겸임교수
- 2013 바이오의약품동향 분석보고서 : 항체의약품 동향 분석보고서

산업에 확산 되면서 바이오와 IT, NT등의 융복합이 이루어져 보다 바이오산업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전략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정의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Industry 또는 BioIndustry)은 유전자 물질인 DNA, 단백질 세포 등의 바이오기술(생명공학 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진단, 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이러한 바이오산업은 의약바이오, 그린바이오, 산업바이오, 융합바이오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을 창출해 내는 핵심요소인 바이오기술은 생물체의 독특한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유전적으로 구조를 변형하여 새로운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바이오기술 중 IT, NT 등 첨단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바이오칩 (Biochip) 은 유리, 실리콘, 나이론 등으로 된 작은 기판 위에 DNA, 단백질 등의 생물분자(biomolecule)들을 집적 시킨 제품으로 특정 유전자를 집적시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기로 개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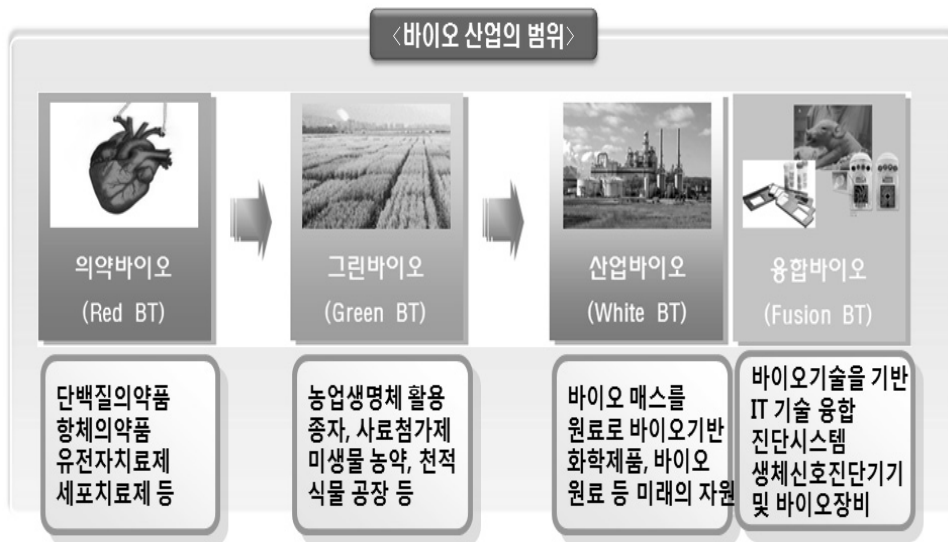
바이오센서는 DNA, 효소, 생물체, 면역물질 등 생체물질을 활용하여 전기 화학적, 광학적, 압전적 방법에 의해 원하는 물질의 양을 탐색하는 소형기기를 통칭하고, 나노 바이오는 분자차원 및 나노스케일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학기술이며,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은 생물학적 물질들에 관한 광범위한 제반 정보를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활용하는 분야 등 새로운 융합기술 제품들이 상업화되고 있다.

또한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는 개체 간 단일 염기 변이로 이 SNP 분석을 통하여 개개인이 질병의 발병 원인과 효과적인 약물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맞춤형 의약품 개발에 응용되고 있으며, 약물 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줄기세포 연구

등의 ,첨단 연구 결과들 역시 예방의학, 맞춤형약, 재생의학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여 난치병 및 유전체 치료에서의 새로운 돌파구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적으로 볼 때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바이오 기술(생축매)을 이용해 바이오 기반 화학제품(유기산, 아미노산, 폴리올, 바이오폴리머 등) 또는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부탄올) 등을 생산하는 미래의 중요한 자원을 연구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IT 등을 융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분야로 진단시스템이 부상하고 있으며, 생체신호 진단기기 및 바이오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농업생명체를 활용해 바이오 농업을 실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분야 또한 중요하며, 종자 사료첨가제, 미생물농약, 천적 등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그림 1).



[그림 1] 바이오산업의 범위

이러한 국내의 바이오산업 시장은 2007년 4조 7,347억원에서 연평균 14.36% 성장률을 보이며 2011년 8조 996 억 원으로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전년대비 7.39% 증가했다. 2011년 바이오산업 국내 판매는 전년대비 10.49% 증가한 3조 7,741억원을 기록했으며, 수출과 수입도 각각 전년대비 3.03%와 8.41% 증가한 2조 8,278억원과 1조 4,978 억 원으로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2013 바이오산업 분야별 시장동향과 유망기술 개발전략’ 에서 기록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발전의 필요성

바이오산업 중 융합바이오의 핵심 기술은 인간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분석된 인간의 유전체 정보는 인체의 청사진이며 개인이 특정 질병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할 경우 고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의 증가, 진료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기술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유전체 기반의 맞춤형약은 개인의 유전체 정보 분석이외에도 IT 기술과 융, 복합하여 원거리에서도 개인의 질병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인에게 알려 줌으로서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병원으로의 발달되어 U(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등과 연계해 미래 의료 체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처럼 바이오산업은 21세기 이후 기술적,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장 크게 나타낼 것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로 진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산업이다., 이 산업은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회, 문화, 예능 방면에서도 매우 큰 비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등 인류의 미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생활이며 필수불가결한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2. 창조경제와 바이오산업, 바이오경제

창조경제와 바이오산업

정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벤처 중소기업을 창조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벤처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보상 받고 중견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벤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 경제의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엔젤 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창조 경제 실현 계획,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같이 벤처 중소기업 성장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벤처에게도 새로운 도약 기회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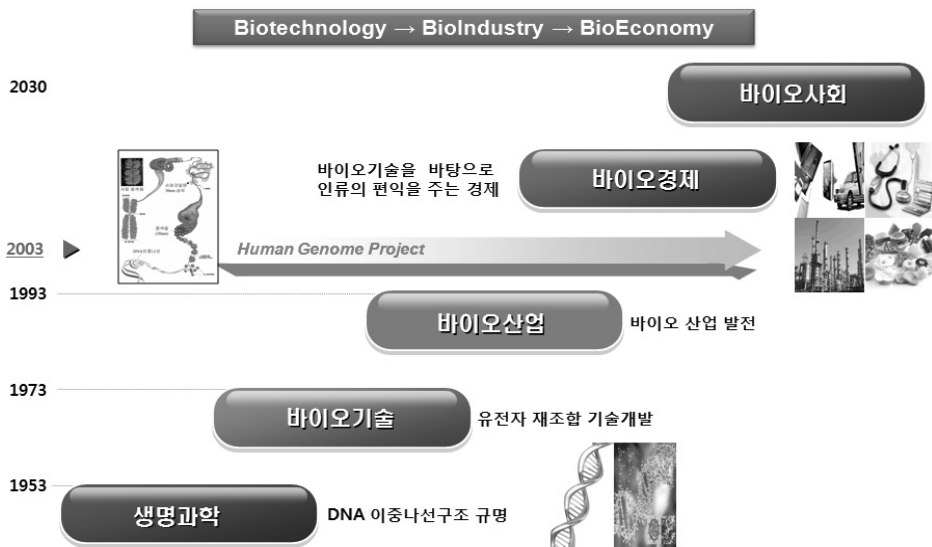
바이오산업은 우리 기업들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며, 인류가 염원하는 우주시대에 도약하더라도 필수적인 산업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여러 기업 뿐만 아니라 학교, 국공립연구소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만 목표한 곳에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산업 이고 타 분야와의 융, 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

바이오 경제(Bio-Economy)란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의 보급이나 서비스의 향상 등을 통하여 인류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OECD에서 말하고 있으며 이를 견인하는 요인들로 인구와 경제, 노동자원, 에너지와 기후 변화, 식료품 가격과 물, 보건의료비용, 기술개발 등이 부각되었다.

세계 경제는 IT(정보통신) 혁명의 뒤를 이어 글로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기술을 통한 미래 사회의 문제 요소인 건강, 식량, 환경, 에너

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실마리가 바이오기술이다.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 혁명의 실체는 바이오기술과 IT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융합 바이오와 여기에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바이오 분야는 강력한 바이오기술로 발전되어 2030년에는 목표로 하는 바이오경제 시대로 진입을 앞 당길 것으로 예측한다(그림 2).



(그림2 바이오산업, 바이오경제로의 도약)

바이오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학 및 기술 발전과 타 기술 대비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바이오제품 및 공정의 성공적인 상용화에 있으며, 재생의학, 맞춤 예방 의학은 의사 및 환자의 관계를 바꾸고 수명과 삶의 질을 증진하여 서비스 공급과 치료법 개발을 기반으로 새로운 바이오 사업 모델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 온실 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바이오 에너지, 노령인구의 증가로 만성 퇴행성 신경질환등 치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 바이오경제 시대를 위한 대응 방안

바이오경제 시대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우리는 IT 인프라를 선형적으로 구축해 세계적으로 IT 강국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렇게 잘 잘 구축된 IT 인프라와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활용하여 바이오경제시대를 위한 융합바이오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아이템을 확보하고, 국,내외 인수 합병(M&A)등을 통하여 시장 규모를 키우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확보하고, 개발한 기술의 보호 차원이나 공격차원에서의 지적재산권(IP)등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시장 규모를 끊임없이 키워야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연구와 산업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바이오에 투자 하도록 인센티브를 조성할 수 있는 현명하고 유연한 정부정책 지도력이 필요하며 글로벌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 강화와 함께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연계사업 및 시스템 구축과 창업펀드 및 성장 펀드의 확대와 같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세계적 선도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 확대와 함께 산학연의 역할을 분담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창의적 융 복합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것도 큰 과제이며 이는 창조경제와 어울려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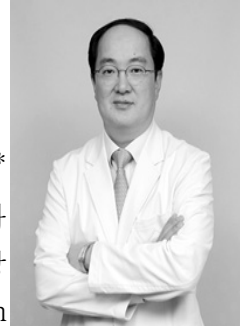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바이오경제 시대가 조속히 도래할 것이며 세계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서울의 미래

바이오-의료 산업 클러스터

남도현*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과 과장
dhns.nam@samsung.com



1. 바이오-의료 산업의 중요성 및 동향

바이오산업은 의료산업 등과 결합되어 연구개발 비중이 크고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고속성장 및 고투자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첨단 영역이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많은 직종의 고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전반부에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바이오 의료산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산업과 클러스터라는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메디클러스터 전략은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독일, 캐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보건복지부 선도형 난치암연구사업단 단장
- 삼성서울병원 암줄기세포연구센터 센터장
- 대한뇌종양학회 운영위원
- 환자맞춤형 전입상 검증 시스템(아바타 스캔 시스템) 구축
- 난치성 신경계 진환 치료를 위한 인간성체신경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
- 다국적 제약회사 및 선도적 연구 그룹과 첨단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나다 등의 선진국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메디컬 부분을 특화 시켜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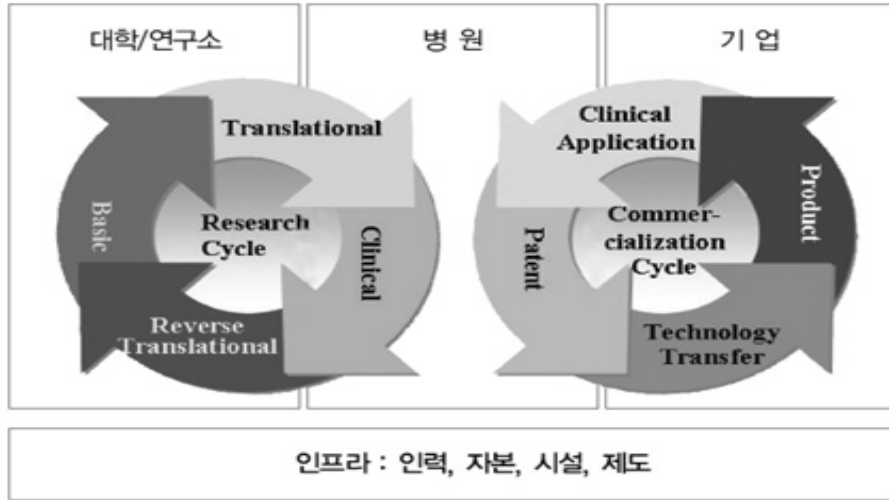
국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덕, 송도, 오송, 춘천 등지에 바이오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메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6대 추진전략(중개연구 활성화,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병원-기업 협력연구 및 기술이전 강화,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활성화, 메디클러스터 사업 전담 관리팀 구성, 의료산업 투자자원 조성 및 병원 벤처투자 활성화)을 확립하는 등 병원을 중심으로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개발 제품 기업의 연계 및 집적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메디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대단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바이오-의료 산업도시 육성을 위한 서울의 경쟁력

위에서 언급했듯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병원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메디클러스터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임상시험 사업단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도시단위로 볼 때 전 세계 임상시험의 80%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짓치고 휴스턴, 샌안토니오에 이어 세계 3위에 랭크되어 국제적인 임상시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부상하는 등 의료 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또한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하여 대형 병원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서울의 바이오-의료 산업의 원동력으로 구축함으로써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R&D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임상과 기초과학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약해 기초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확립해 수행하는 등 세계적인 바이오-의료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클러스터에서는 선진국과의 역량격차가 크지만 이렇듯 병원의 일부 분야 경쟁력이 선진국에 근접한 우리나라는 메디클러스터 전략이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비전과 전략 수립, 과감한 투자 등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계적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여 바이오의료 산업도시로써 서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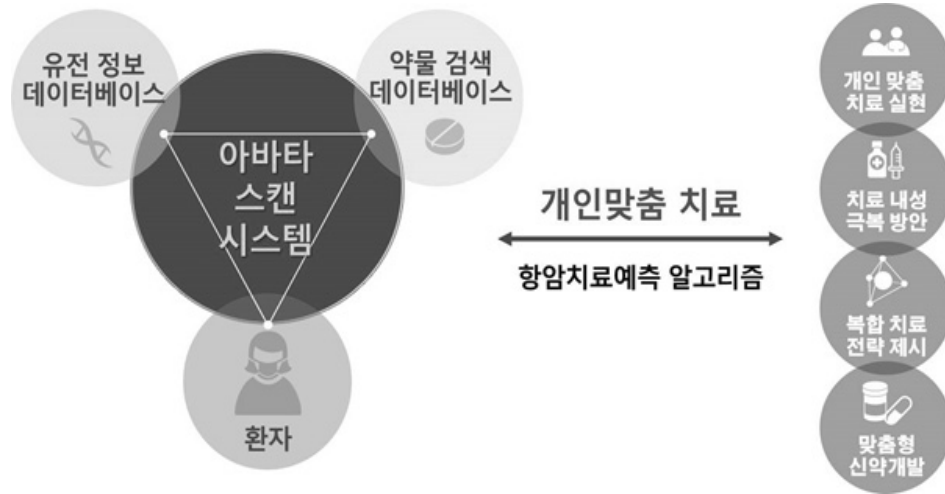
자료 : 메디클러스터 6대 전략, 보건산업진흥원

[그림 1] 연구 의료개발 및 사업화 과정의 촉진 및 연계 강화

3. 개인맞춤치료: 기초연구, 약물개발, 진단기술 및 IT 기반의 융복합 미래 산업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요 바이오-의학 산업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재생 및 로봇의학 분야 육성, 맞춤형단 및 치료, 유전자 지표를 이용한 개인 맞춤 치료 분야 등이 집중 투자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맞춤 치료 분야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의학 산업의 핵심영역이다.

현재 서울의 대형 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환자유래모델을 통한 환자맞춤형 항암제 및 치료법 개발이 진행 중이며, 그 일례로 필자가 속해 있는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에서는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암환자의 수술 조직을 이용하여 해당 환자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맞춤 항암치료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개인맞춤 약물개발 시스템(아바타 스캔 시스템, AVATAR Scan System)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임상 및 유전자 정보와 결합된 개인맞춤형 선진 치료시스템으로써 기초연구, IT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초고속 약물 검색을 통한 약물개발 및 진단기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융복합 시스템으로써 개인맞춤치료를 위한 첨단 미래 산업으로써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의료기술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등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림 2] 개인맞춤항암치료법 개발을 위한 인터페이스(아바타 스캔 시스템) 개발

개인맞춤의학을 위한 개발 과정이 매우 복잡한 만큼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연구 성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각 병원 및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개발 제품 기업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대학 및 연구소가 수행한 기초과학 성과를 임상에 적용하는 중개연구를 수행하며 전문 인력과 임상시험센터를 통해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기업체는 병원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아 제품화하고 이를 다시 병원에 공급해 테스트 해보는 유기적인 메디클러스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서울을 세계 약물개발 중심지로, 한국을 제약 강국으로..

부처 간의 협력을 넘어 국가 단위의 집중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앞선 IT, BI 기술과 의학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산업화 할 수 있는 의료-융합기술 메디클러스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아바타 스캔 시스템과 같은 개인맞춤치료를 위한 차세대 신약개발 시스템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서울이 세계의 약물개발 중심지로 도약하고, 활성화된 선진형 개인맞춤 약물 개발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스위스와 같은 제약 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보건산업진흥원(2006) 메디클러스터 6대 전략
- 보건산업진흥원(2006)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전략
-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08) 의료-융합기술 메디클러스터 현황 및 동향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 개인맞춤형 암유전체 연구동향 및 전망
- 보건산업진흥원(2012) Health Tech KOREA 2020 미래비전과 전략방향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 공공임대주택과 소셜믹스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

공공임대주택과 소셜믹스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

ojs94@i-sh.co.kr

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 도입 배경

80년대 후반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로 공급되거나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가 구분되어 공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현상이 나타났다. 즉, 대규모 공공임대단지 지역이 침체되고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약자 층이 다른 계층과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저소득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사회적 차별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반발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등이 대단지로 분리 및 고립되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 시 공간적 차별현상이 발생하며, 민간사업자에 의해 주도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아파트는 단지 내 지형이 불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에 옹벽과 철조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경희대학교 행정학박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한국주거학회 이사,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이사, 한국지방행정학회 이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신홍대학교 지적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전 국제협력단(KOICA) 해외사업평가위원, 전 서울시 용역평가위원 및 공무원직접수행연구 평가위원, 전 서울시교육청 교과과정선정위원.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분석(2010),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주택의 활용방안 연구(2011),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연구(2012), 주택관리조직의 서비스 지향성이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2013).

망을 설치하여 임대주택 입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배제문제가 심각하다(한겨레21, 2006.04.04).

정부는 2005년 임대주택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득계층간 사회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동일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평형도 다양화하며, 동일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함께 배치하고, 입주자격제도도 개선 하는 등 사회적 혼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제2기 신도시(위례,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는 소득과 연령이 상이한 계층들이 더불어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주거지를 형성 하도록 계획하였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기존 임대주택 위주의 획일화된 공급유형에서 벗어나 가구특성이 상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들이 혼재하도록 하였다. 즉,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중소형 분양주택을 소득, 선호도 등 계층별 수요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회 통합적 정책방향 제시 이전에 서울시는 2003년 ‘공공임대 1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임대분양 혼합배치를 포함하여 계층 간 화합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2003년 공공임대 10만호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여 달리는 건립지역 관할 자치구의 건의가 있자 대규모 공급단지인 장지, 발산지구와 구로, 은평, 강일, 노원지구에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건립비율을 1 : 1로 하여 건설하기로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1:1의 비율로 건설하면서 임대주택의 규모도 18평형(전용 12평)에서부터 33평형(전용25.7평)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한 단지 내에서 주동을 달리하거나 같은 주동 내에서 라인을 달리하는 등 혼합건립 함으로써 계층 간의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임대주택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여 향후 독립된 임대주택단지라는 개념을 불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장지, 발산지구와 은평지구 등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단지 건축을 위한 현상설계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배치 방안’을 포함하여 공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 민선4기에 들어서서도 지속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와 동별 구분 없이 혼합배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2006년 7월24일, 부시장 지시사항, SH공사, 임대

분양혼합단지의 가시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2007, pp.20-21.)

2004년 서울시 의회는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하였다. 동 조례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항 2호 바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고 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사회혼합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동항 동호 라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해당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또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퍼센트) × (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는 분양과 임대를 혼합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또한 동 조례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에서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도록 하여 소규모 즉 좀 더 저렴한 주택이 되도록 노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서울시 소셜믹스정책 현황 및 문제

1) 현황

서울시는 2003년도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평뉴타운에 소셜믹스 즉 분양 임대주택 혼합을 최초로 적용하였다. 은평뉴타운은 계획단계부터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12년 1월 현재 전체 1만4,138세대 가운데 일반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혼합된 단지가 총 18개 단지 7,488세대(임대 3,195, 분양 4,293)로 52.9%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소셜믹스단지는 여러 유형으로 혼합할 수 있는데 특히 은평은 단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별 혼합과 층별 혼합을 실시하여, 주동에 분양과 임대를 혼합하였다. 또한 국민임대, 장기전세, 분양세대 또는 장기전세와 분양세대로 혼합되어 있다. 즉, 분양과 임대간의 차이를 줄이려 하여, 계층간의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배재와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SH공사의 주택 관리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2012년 말 현재, 서울시 SH공사는 336개 단지 137,07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임대분양 혼합단

지는 164단지(전체 단지의 48.8%), 36,055세대(총세대의 26.3%)이다.

혼합단지 구성은 국민임대 8개 단지, 2,930세대,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61개 단지 24,319세대, 외국인임대 1개 단지 88세대, 장기전세주택 10개 단지, 1,771세대, 재개발 29개 단지 4,233세대, 재건축장기전세주택 43개 단지 1,485세대, 주거환경임대 12개 단지 1,229세대이다. 혼합단지 중 분양이 임대보다 많은 단지는 97개 단지이며, 강일 9단지(87%), 천황지구 3단지(96%) 등과 같이 임대가 분양보다 많은 단지가 57개 단지이다.

[표 1] 서울시 SH공사의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주택관리현황

구분	분양·임대 혼합단지	
	단지수	세대수
계	164	36,055
국민임대	8	2,930
국민임대 + 장기전세주택	61	24,319
외국인임대	1	88
장기전세주택	10	1,771
재개발임대	29	4,233
재건축장기전세주택	43	1,485
주거환경	12	1,229

2) 문제점

①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제도 미흡

임대주택법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⑥항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혼합단지의 경우 분양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공사는 일반관리업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임대세대의 소유자로서 임대관리만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서울시 SH공사의 주택관리는 소유자로서의 관리와 임대사업자로서의 관리가 있는데, 전기, 난방, 기계설비 등 시설물유지관리는 분양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고, 임대료 징수,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소유자로서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② 물리적 혼합 외에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소셜믹스 프로그램이 부족

서울시에서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분양과 임대세대를 물리적으로 혼합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혼합한다고 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분양임대 혼합단지 입주민들이 상호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러한 정책프로그램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임대단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선입견은 분양세대의 주거만족도를 저하시키며, 반사회적 행동등에 노출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편의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도 분양세대와 임대세대는 분명 다른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물리적 혼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빈부간 불편함, 부정적 선입견, 집값에 안좋은 영향, 자녀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하는 것이다(박근석, 소셜믹스의 문제와 향후 방향, 건축, 2012. pp.18-20).

③ 기존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특히 영구임대)의 사회적 배제 문제

공공임대주택은 내부적으로 취약계층의 밀집지역으로 물리적인 무질서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갈등 및 관리의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인근주민들과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서울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주변지역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임대주택단지가 주변지역과 화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사회적 배제 문제는 분양과 임대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 주택 내에서도 주택의 규모에 따라 사회적인 배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초구 반포자이(공공임대 SHift 혼합)의 경우 분양주택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빈부차이에 의한 사회적 배제가 향후 서울시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④ 내재된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소셜믹스 정책의 부족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소셜믹스는 단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간의 물리적 혼합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빈부간의 격차도 해소해야겠지만, 이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세대간의 갈등과 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계층간의 혼합보다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당장은 분양임대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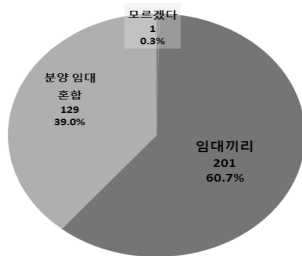
합단지의 주택관리 문제가 시급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내에서의 세대간의 소외, 분양주택 간의 사회적 배제, 아파트와 다가구밀집 지역간의 사회적 배제 등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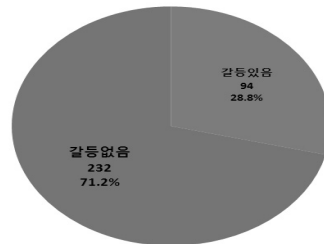
2013년 7월1일부터 약 한달간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 재개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혼합, 일자리 제공, 임대료 및 임대료 차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8개 센터별 임대유형별 입주자로 332명에게 설문하였다. 조사대상의 주택규모는 평균 약 52㎡(약 15.76평), 가족구성원수는 2.7명, 월소득은 105.2만원이었다.

임대세대와 분양세대를 혼합하는 정책에 대해 입주민들은 임대세대끼리 사는게 좋다고 응답한 입주자가 전체 응답자 중 201명(전체의 60.5%)이 응답하여, 분양세대와 혼합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단지내 소득, 연령, 배경(출신지역 등)이 다른 계층혼합으로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94명(전체의 28.3%)이 갈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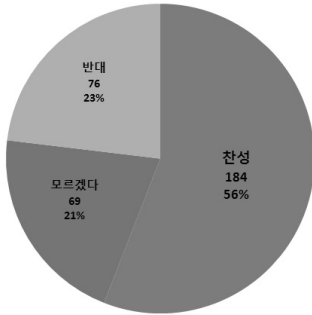
[그림 1] 임대·분양 혼합정책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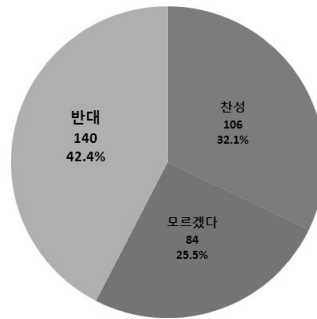
[그림 2] 계층간 갈등여부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찬성이 184명(전체의 55.4%)이었고,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물가에 맞춰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106명(전체의 31.9%)이었다.

경비, 청소, 소독, 건축 등 노동직 또는 필요한 교육을 받아 기능직, 사무직, 복지사로 취직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1-2년 정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할 의향을 설문한 결과, 177명 전체의 53.3%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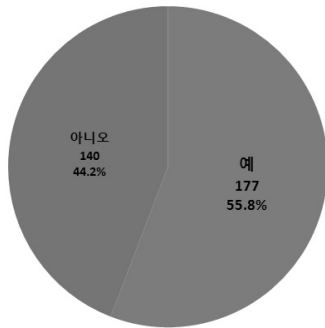


[그림 3] 임대료 차등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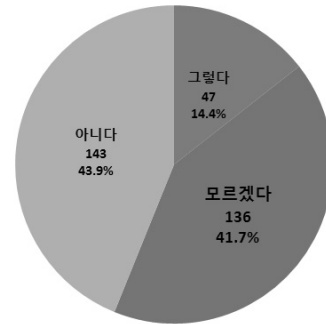


[그림 4]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임대료 인상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비 수준에 대해서는 143명(전체의 43.1%)이 비싸지 않다고 답하였고, 47명(14.2%)만이 비싸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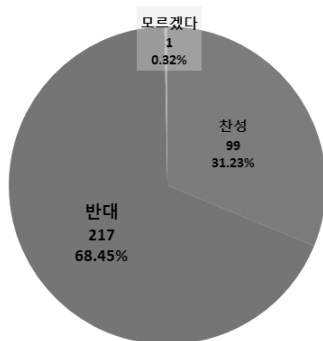


[그림 5] 일자리 제공



[그림 6] 관리비

임차인들이 대표를 뽑아 스스로 관리(임대관리, 청소, 경비 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9명(29.8%)이 찬성, 217명(65.4%)이 반대하였다.



[그림 7] 임차인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

4. 소셜믹스 정책방향

1) 과제

인위적인 계층혼합이 가지는 한계가 있으며, 잠재되어 있는 고령자세대의 사회적 소외에 대한 세대 간의 혼합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심리적인 배제의 문제는 단순히 주거단지의 혼합과 각종 정책적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볼 수 있다. 빈부와 주택규모, 주거유형의 차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사회의 미성숙한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임대혼합단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내의 세대혼합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영구임대주택이 입지한 경우, 혹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거주자나 분양거주자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된다. 50년 공공임대나, 영구임대의 경우 물리적 배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외부적인 사회적 배제도 문제지만, 영구임대단지가 슬럼화 되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혼합단지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관리에 대한 법령의 미비로 나타났다. 주택관리와 관련한 법제정비의 미비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차권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입주민 중심의 주택관리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택관리는 소유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다.

차이가 많이 나는 계층 간의 혼합은 주민간의 소통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다. 입주민들은 이웃 간의 원활한 소통과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비슷한 계층끼리 모여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의 고취 측면에서는 비슷한 분양임대 혼합단지를 조성할 때, 계층 간의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조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은평뉴타운의 경우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혼합단지를 조성하였다.

재개발지구의 혼합단지보다 택지개발지구 혼합단지의 입주민 갈등이 많았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혼합단지 입주민간의 갈등이 다른 혼합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재개발 단지는 분양과 임대를 구분 관리하여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었으며, 혼합단지조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특히, 재건축장기전세단지에는 주변의 입지가 좋아 혼합단지 찬성율이 높았다.

소셜믹스 정책의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임차권 강화와 주택관리(공공, 민간임대)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로 우리공사의 과제라기 보다는 국가차원의 정책과제라 할 수 있는데,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식의 전환 과제로 주택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함께 사는 사회라는 시민의식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특히 영구임대에 대한 사회적 배제 해결 과제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제는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혼합 정책개발의 과제는 계층간의 혼합과 함께 세대간의 혼합, 특히 공공임대주택 내의 혼합의 과제이다.

2) 정책방향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소셜믹스의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주택관리체계 개선이 있다. 이는 분양임대혼합단지에 대한 주택관리 제도 정립과 함께 임차인의 주택관리 참여와 관련한 임차권 확립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임차인의 임차권 강화와 함께 임대인이 주택공급자로서 주택정책의 한 주체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이다.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 주거지로, 주변 지역과 소외되어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주거단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이 주거지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교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이다. 분양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야 하며,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단지와 주변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지역의 주거복지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임대주택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연, 2009, 공공임대아파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주동공간계획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욱, 2008, 사회통합에 관한 혼합단지 내 주거만족도 조사 연구 : 수원 매탄 주공 그린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진·서수정·정경일, 사회통합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및 개발사례의 특성 연구, 국토계획, 40(6): 159-176.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 연구 -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박근석, 2010, 소셜 믹스의 문제와 향후 방향,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54(7); 18-20.
- 원종석·남진, 2012, 서울시 재건축시프트의 사회적 혼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계획, 47(2);69-82.
- 정희수, 2010, 보금자리 임대주택관리 개선방안,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홍인욱, 2005,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사회통합 방안. 도시와 빈곤 76, 32-60.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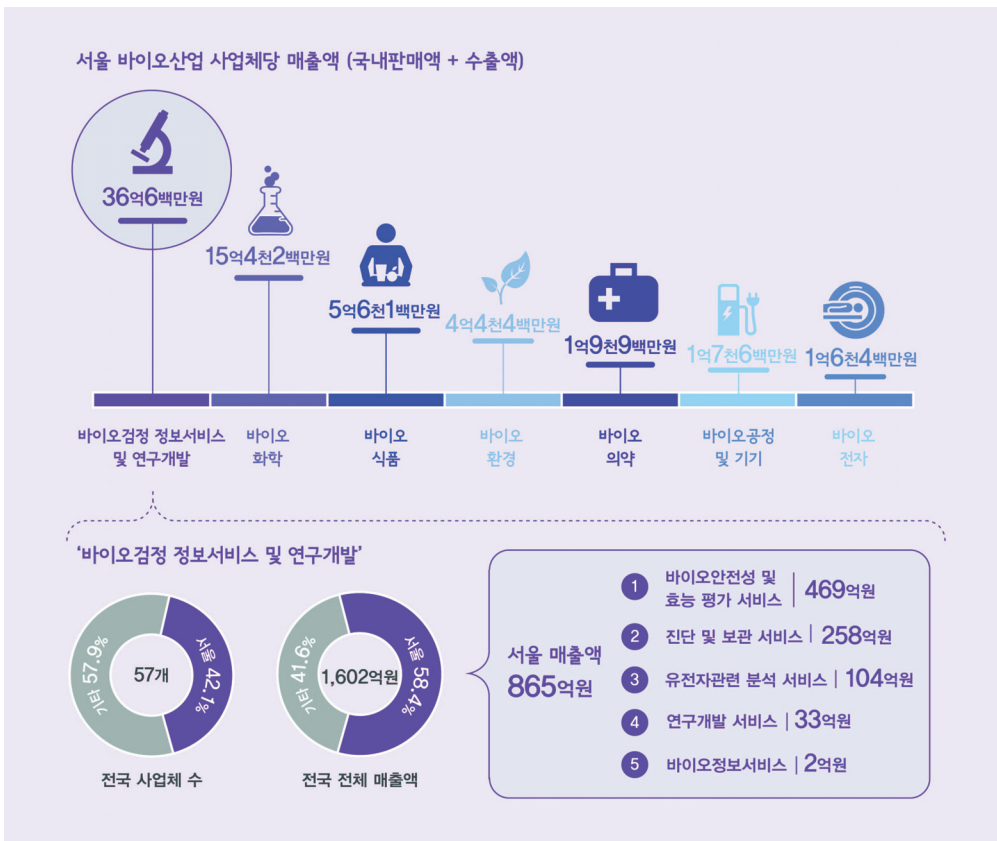
■ 서울 바이오산업의 현주소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서울 바이오산업의 현주소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의 바이오산업은?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중심으로 서비스 및 R&D분야에 특화

- 서울의 바이오산업 중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체당 매출액이 최고
 -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3,606백만원으로 전국 2,811백만원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큼

〈표 1〉 2011년 서울 분야별 바이오산업 사업체 수와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내판매액	수출액	매출액	사업체 당 매출액
바이오의약	10,590	1,156	11,746	199
바이오화학	9,823	21,012	30,835	1,542
바이오식품	10,667	-	10,667	561
바이오환경	4,000	-	4,000	444
바이오전자	1,410	-	1,410	176
바이오공정 및 기기	2,900	59	2,959	164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81,381	5,152	86,533	3,606
전체	120,771	27,379	148,150	944

- 서울의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분야 사업체 수는 전국 1순위
 -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분야의 사업체 수는 전국 57개 중 서울이 24개 (42.1%)로 가장 큰 비중 차지

〈표 2〉 2011년 전국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분야 사업체 수

(단위 : 개, %)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체 수	전국 대비 지역 비중
경기	18	31.6
서울	24	42.1
기타	15	26.3
합계	57	100.0

- 서울의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전체 매출액은 전국 1순위
 - 서울의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분야의 국내 판매액과 수출액은 865억원 (58.4%)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이는 서울의 바이오산업 중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분야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시사
 -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의 세부 분야 중 ‘바이오안전성 및 효능 평가 분석 서비스’의 국내 판매와 수출액이 4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표 3〉 2011년 서울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분야 중분류 매출액

(단위 : 백만원)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국내판매액	수출액	매출액
바이오정보서비스	31	151	182
유전자관련 분석 서비스	10,276	151	10,427
연구개발 서비스	2,767	500	3,267
바이오안전성 및 효능 평가 서비스	42,545	4,350	46,895
진단 및 보관 서비스	25,762	-	25,762

주) 바이오산업 사업체: 바이오산업 제품이 제조되는 장소 기준

매출액: 연간 국내 판매액 + 연간 수출액

자료: 2011년 기준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협회 2013.7 발표)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 동 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용**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 출 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약 | 8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8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1.4로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
- 8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8.3% 감소, 4.9% 증가하여 경기하강기

소
비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323억원으로 전국(5조9,321억원)의 37.6%를 차지
- 8월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7.2%, 8.3% 각각 증가

고
용

- 서울의 8월 취업자 수는 509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8천명(1.1%)이 증가
- 서울의 8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물
가

- 2013년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0(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 대비 1.2%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북지역(-0.27%) 특히 노원구(-0.58%)와 강북구(-0.45%)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9% 하락
-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 역시 강남지역(0.90%) 특히 강서구(1.65%)와 구로구(0.96%)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83% 상승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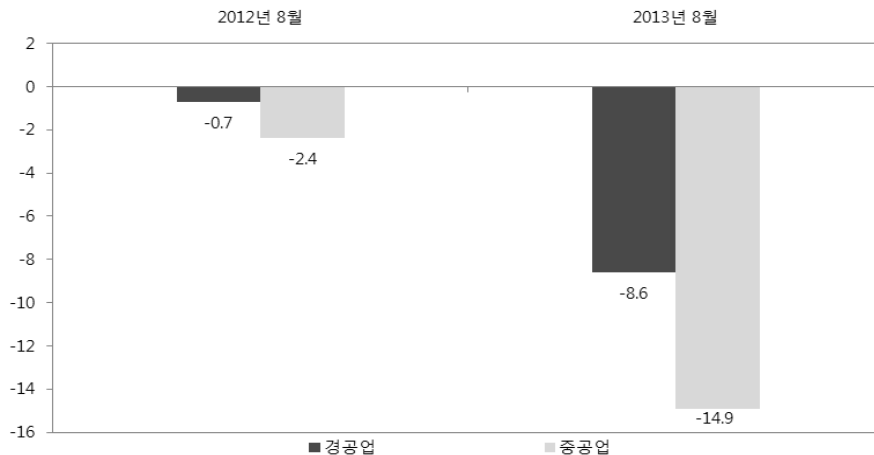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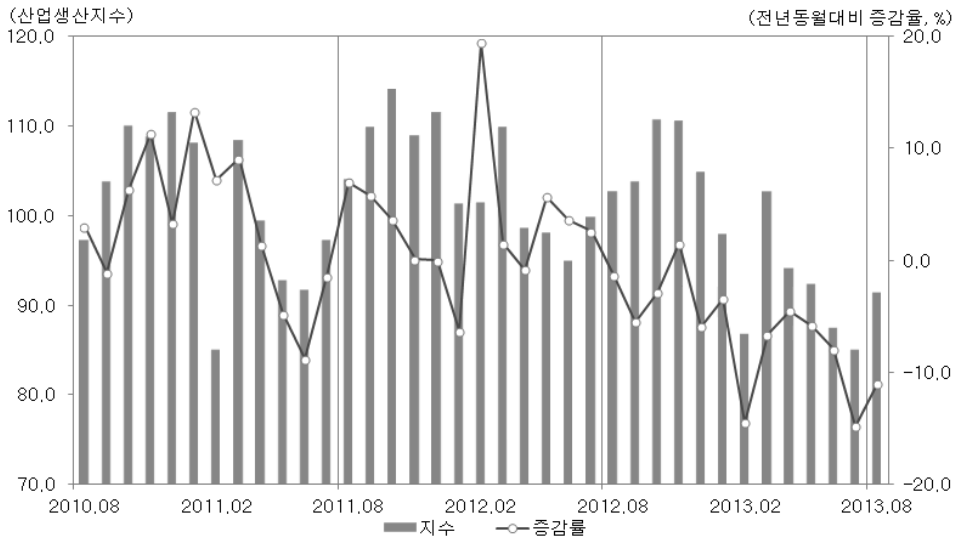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9조 9,242억 원으로 전월대비 0.38% 증가, 그 중 가계대출은 176조 9,552억 원으로 전월대비 0.3% 증가
- 서울의 8월 신설법인수는 2,065개로 건설 및 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3% 증가
- 서울의 8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7.9% 감소

수
출
입

- 서울의 8월 수출은 5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품목별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8월 수입은 107.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역시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8월 제조업생산지수 91.4(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
 - 경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8.6% 감소, 중공업부문은 14.9%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38.5%), 고무 및 플라스틱(24.6%), 금속가공(18.3%) 등 증가, 기계장비(-23.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2.1%), 의복 및 모피(-14.8%)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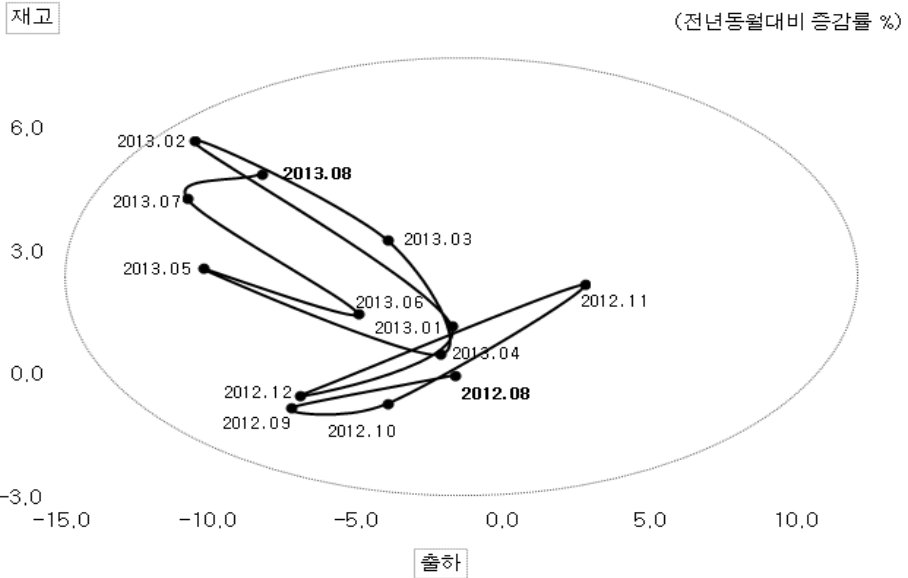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8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8월 출하지수는 95.5(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8.3% 감소
 - 서울의 8월 재고지수는 108.8(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4.9%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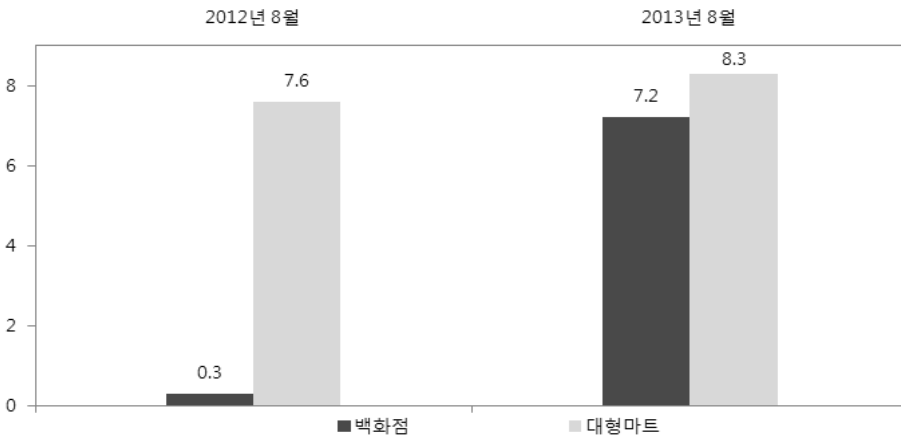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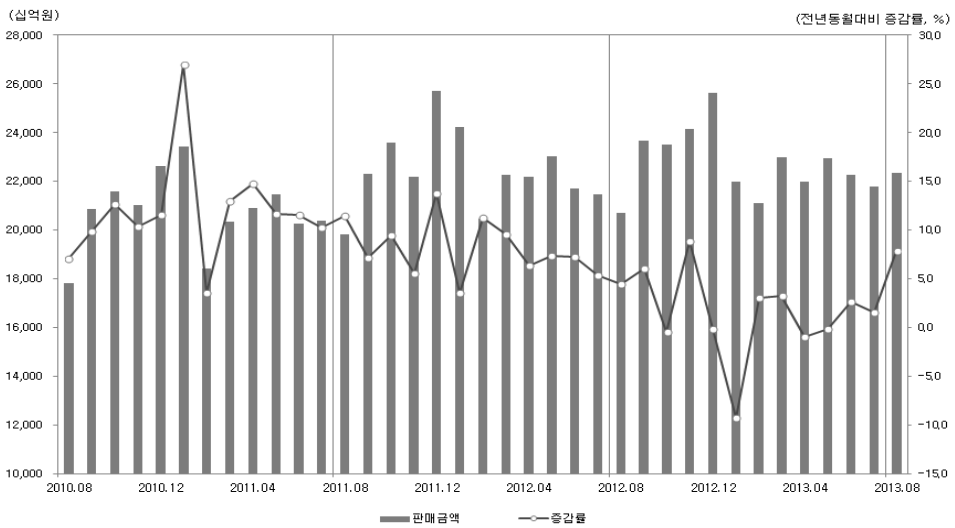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323억원으로 전국(5조9,321억원)의 37.6%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9,359억원으로 전국(2조216억원)의 46.3%,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2,964억원으로 전국(3조9,105억원)의 33.2%를 차지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6.0으로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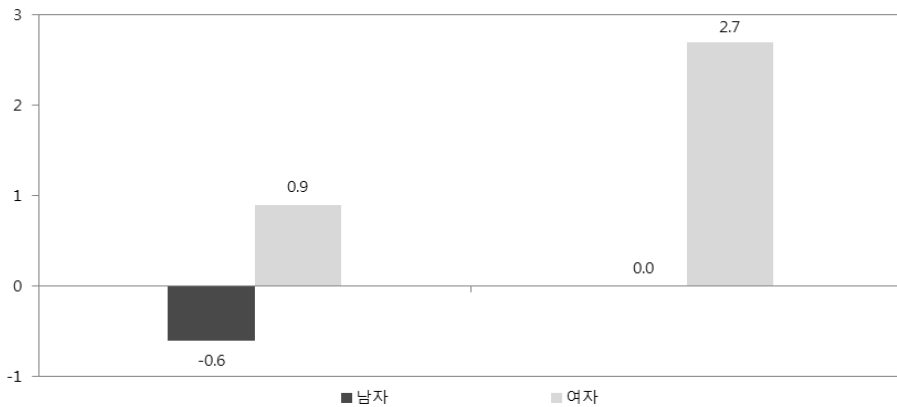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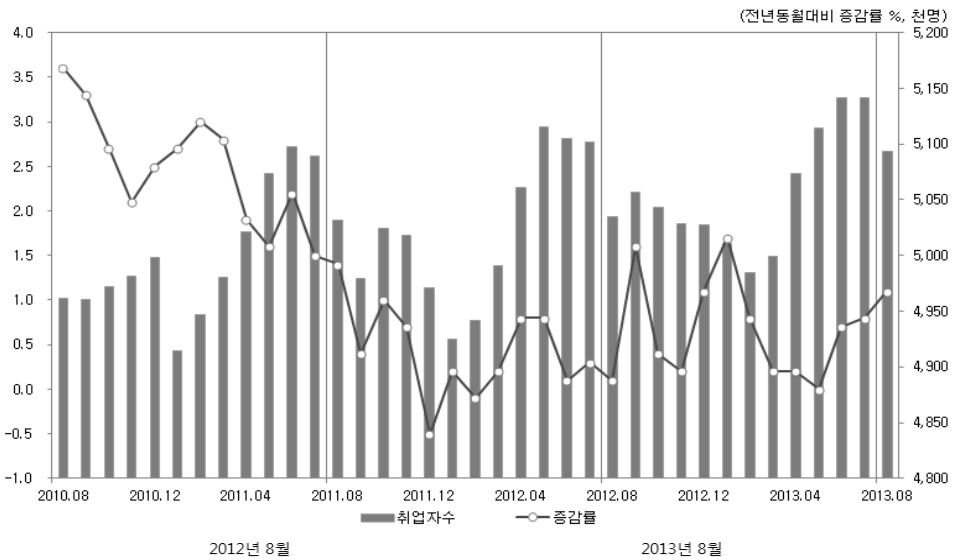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 · 업 · 자 |

■ 서울의 8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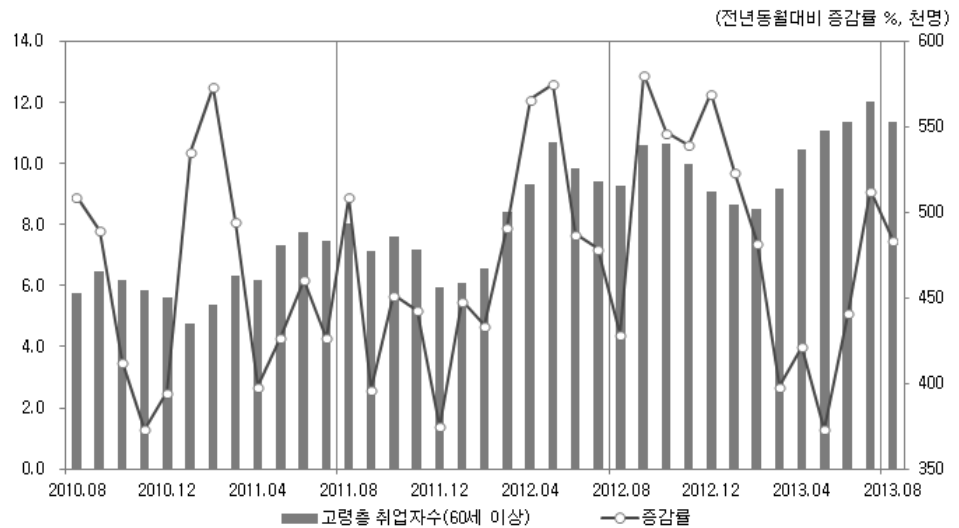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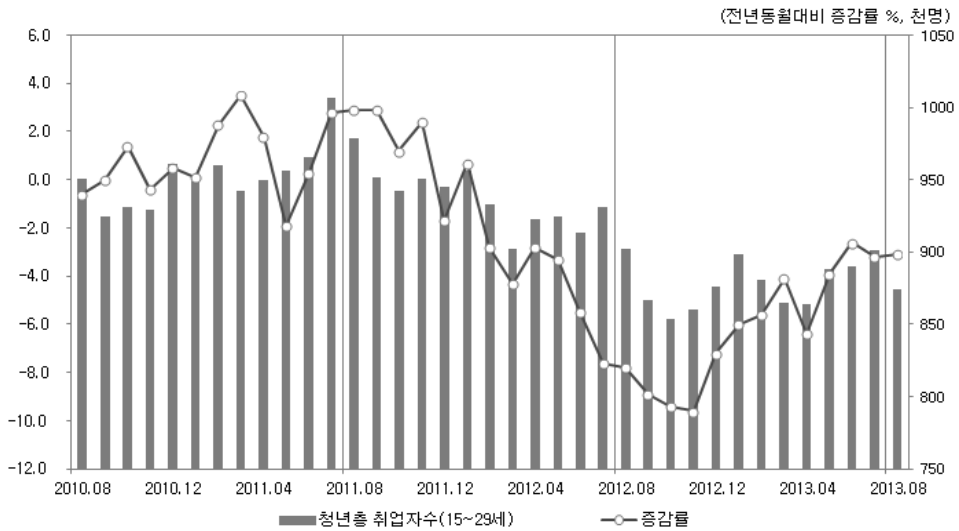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취업자는 509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8천명(1.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만6천명, 여자는 224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보합(0.0%), 여자는 5만8천명(2.7%)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7만8천명(9.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5만7천명(2.8%)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하락,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7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서울의 8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5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5%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2013년 8월 청년층과 장년층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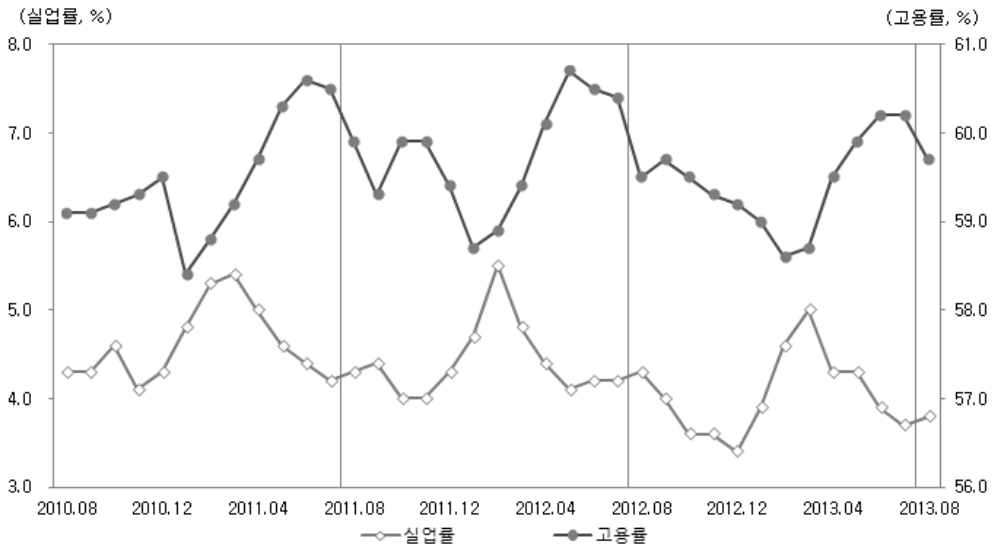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8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8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5%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여자는 50.6%로 0.7%p 증가
 - 2013년 8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0%)에 비해 0.3%p 낮은 수준

- 서울의 8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8월 실업자는 20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3천명(-10.4%)이 감소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 여자는 3.1%로 전년동월대비 0.3%p, 0.7%p 각각 감소
 - 2013년 8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0%)에 비하여 0.8%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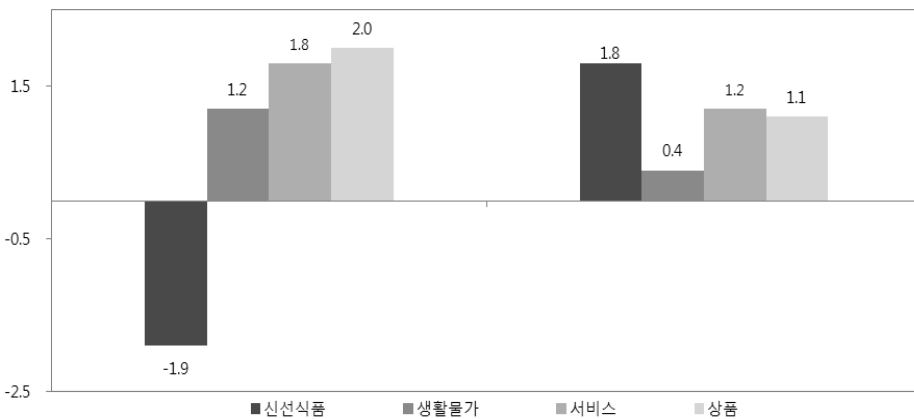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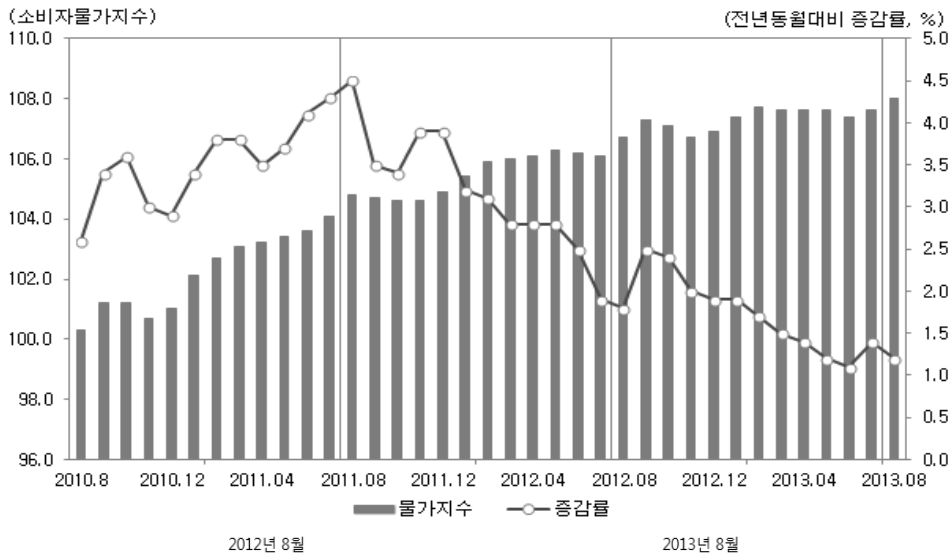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0(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교통·통신은 변동이 없으며,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2%), 교육(-0.4%), 기타상품 및 서비스(-3.7%)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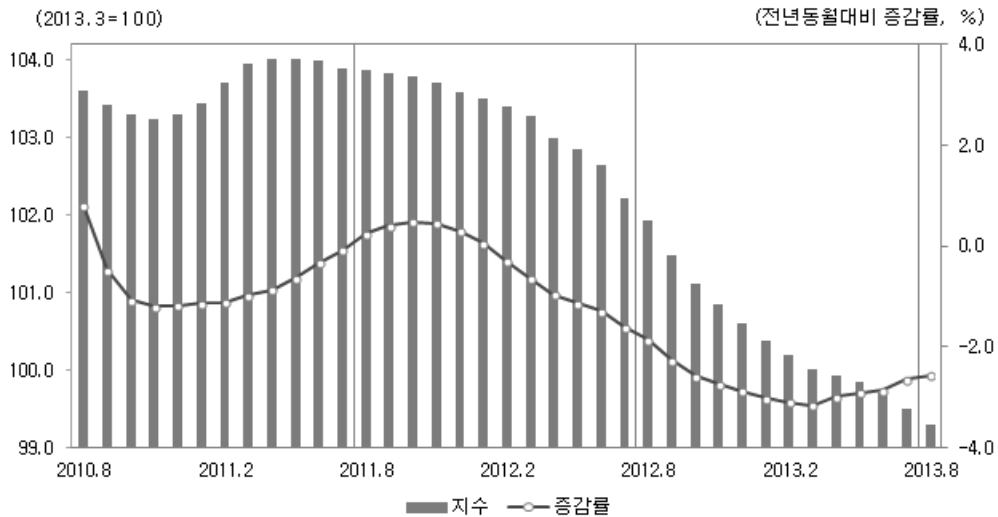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19% 하락
 - 강북지역(-0.27%), 강남지역(-0.12%)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하락
 - 하락률 상위지역: 노원구(-0.58%), 강북구(-0.45%), 양천구(-0.25%), 강남구(-0.23%)
 - 아파트(-0.29%), 연립주택(-0.10%), 단독주택(-0.03%) 등 하락세 지속
- 전국의 8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4% 하락
 - 광역시(0.15%), 기타지방(0.11%) 모두 전월대비 상승, 수도권(-0.19%)은 하락세 지속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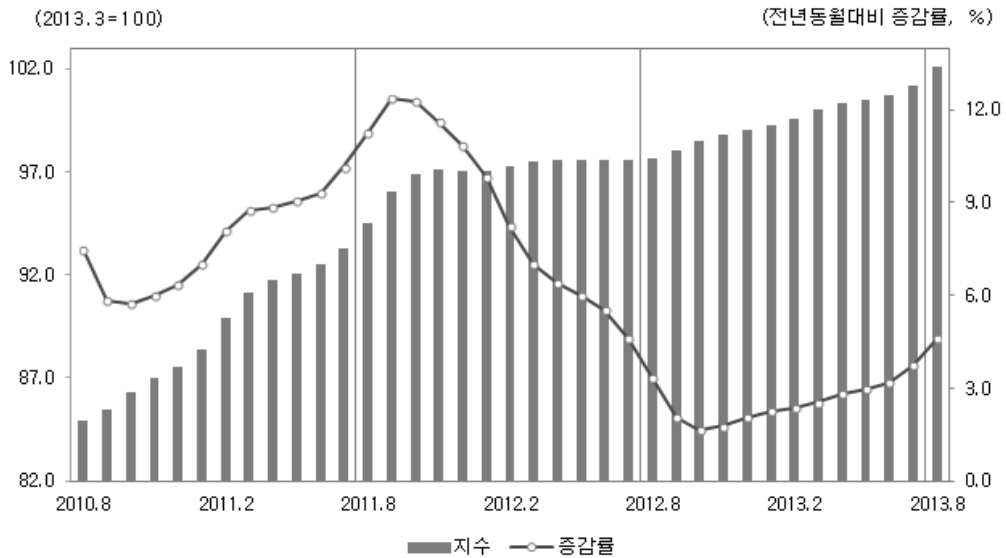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매매가격(1,628만원)은 전월(1,630만원)대비 0.2% 하락
 - 매매거래건수(2,782건)는 전월(1,911건) 대비 45.6% 증가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83% 상승
 - 강남지역(0.90%), 강북지역(0.76%)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강서구(1.65%), 성북구(1.14%), 성동구(1.06%), 구로구(0.96%)
 - 아파트(0.99%), 연립주택(0.76%), 단독주택(0.41%)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8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57% 상승
 - 수도권(0.80%), 기타지방(0.31%), 광역시(0.26%)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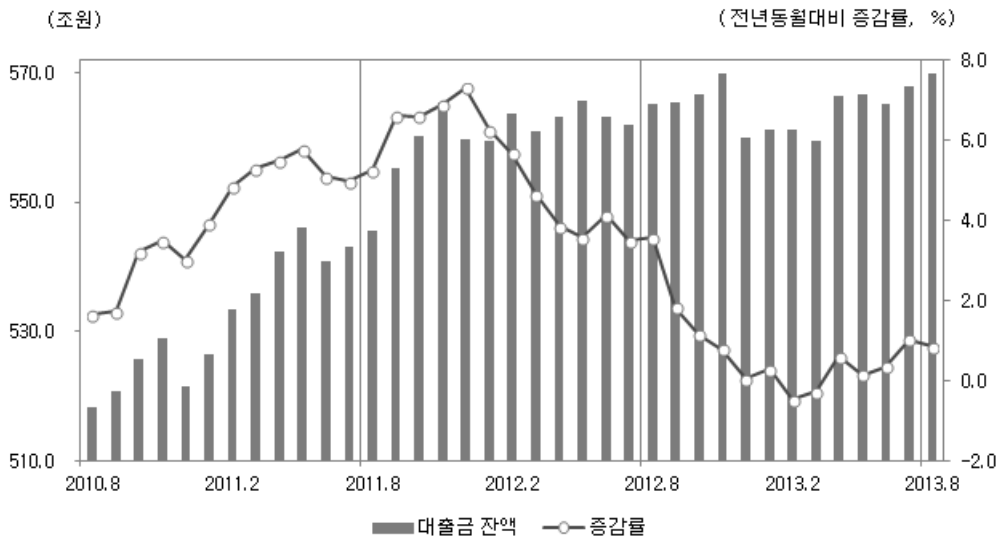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전세가격(평균 914만원)은 전월(900만원)대비 1.6% 증가
 - 전세거래건수(8,285)는 전월(8,103건) 대비 2.2% 증가

| 가 · 계 · 대 · 출 |

- 8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69조 9,242억원)은 전월(567조 7,886억원)대비 0.38%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60조 6,965억원)과 비예금은행(109조 2,277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0%,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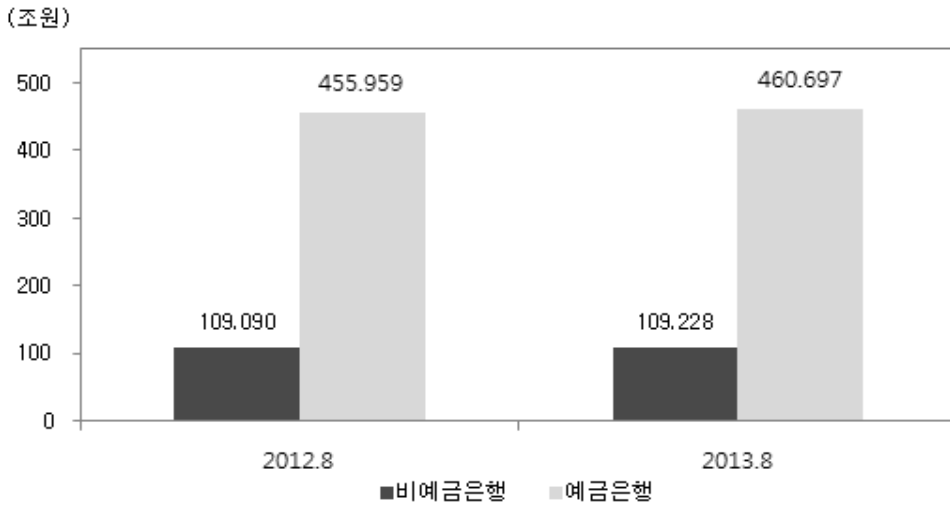
- 8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492조 870억원)은 전월(1,483조 7,840억원)대비 0.56%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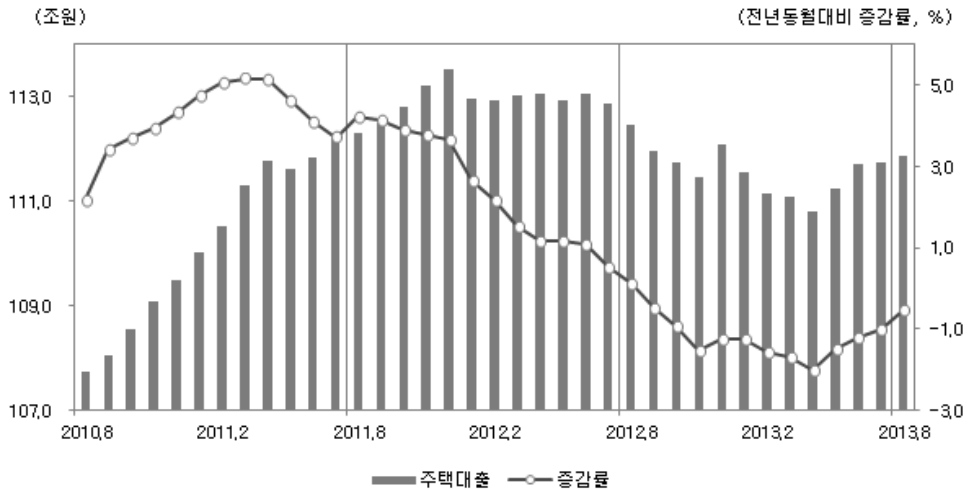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8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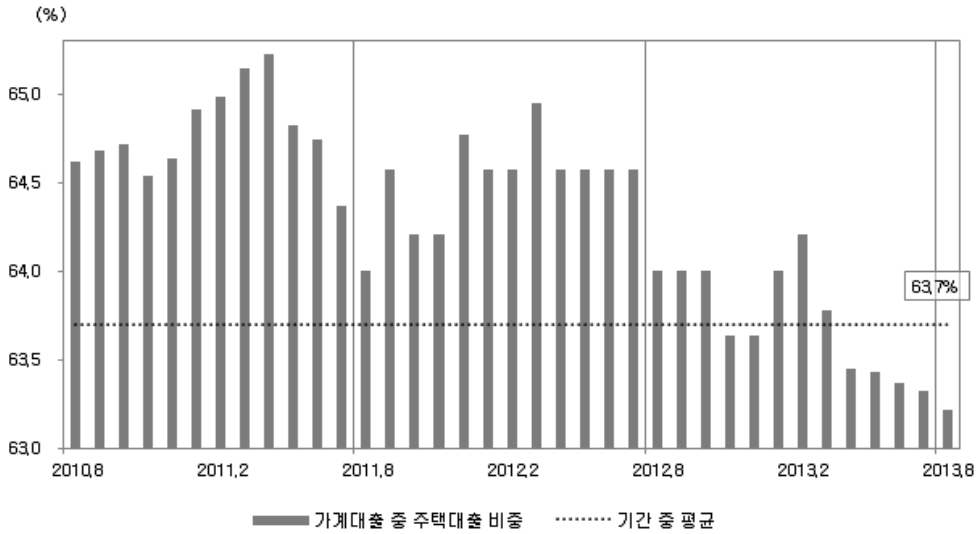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76조 9,552억원)은 전월(176조 4,553억원)대비 0.3%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1조 8,669억원)은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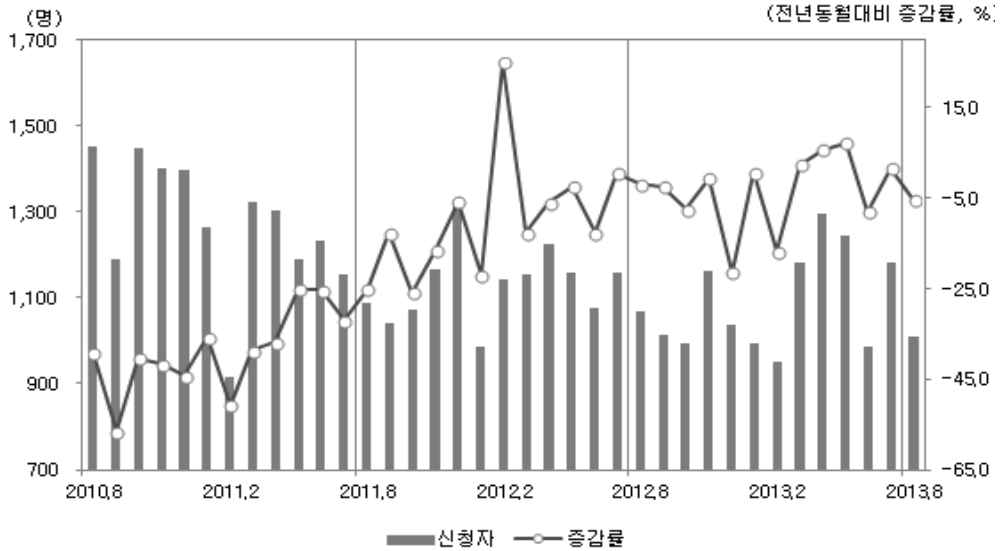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8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1,008명)은 전월대비 14.6% 감소, 전년동월대비 5.5%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4.6%)은 전년동월대비 47.7%p 감소, 면책 기각률(4.9%)은 전년동월대비 51.7%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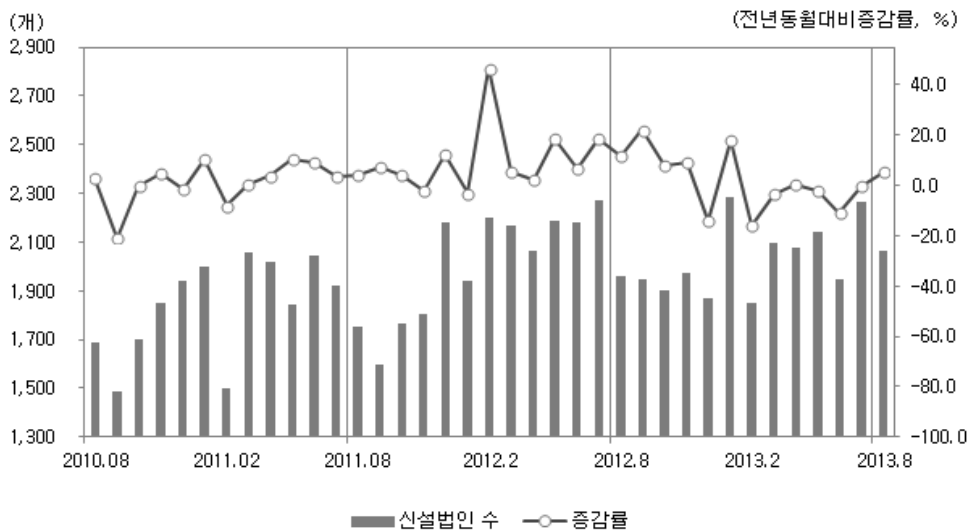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설·및·부·도·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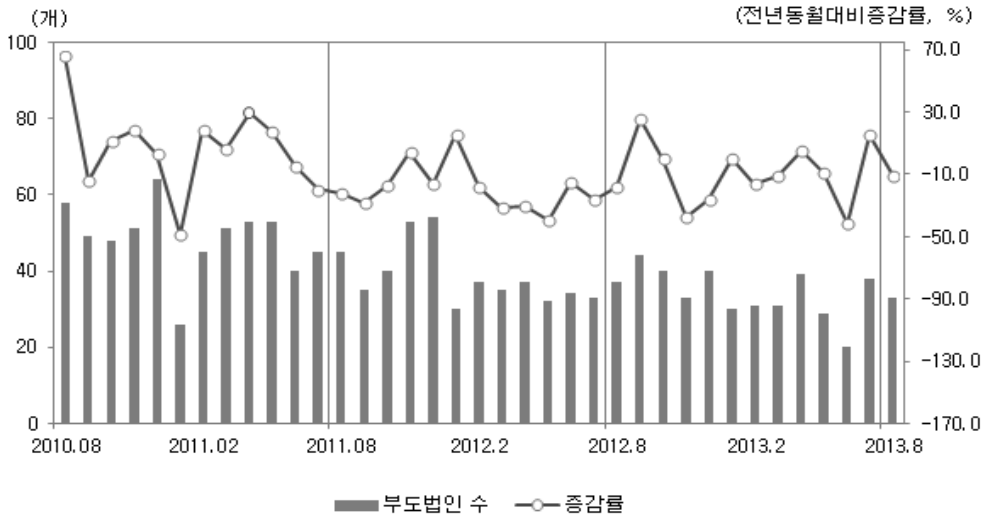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65개로 전월대비 8.9%(202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5.3%(104개)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3.3%(4개) 증가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31.7%(114개), 4.9%(87개) 감소

- 서울의 8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3개로 전월대비 13.2%(5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10.8%(4개) 감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17.6%(3개) 증가, 제조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 대비 각각 40.0%(6개), 40.0%(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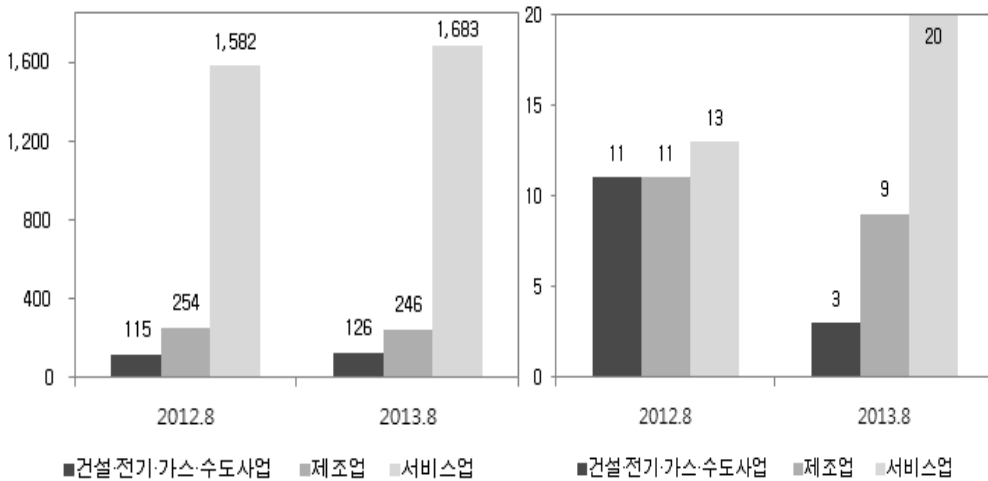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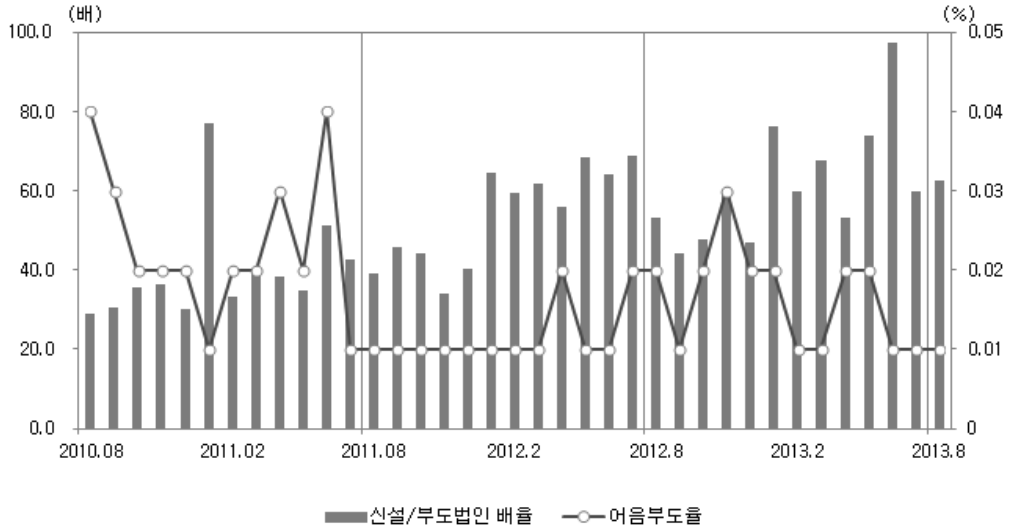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 현황

- 8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2.6배로 전월 (59.7배)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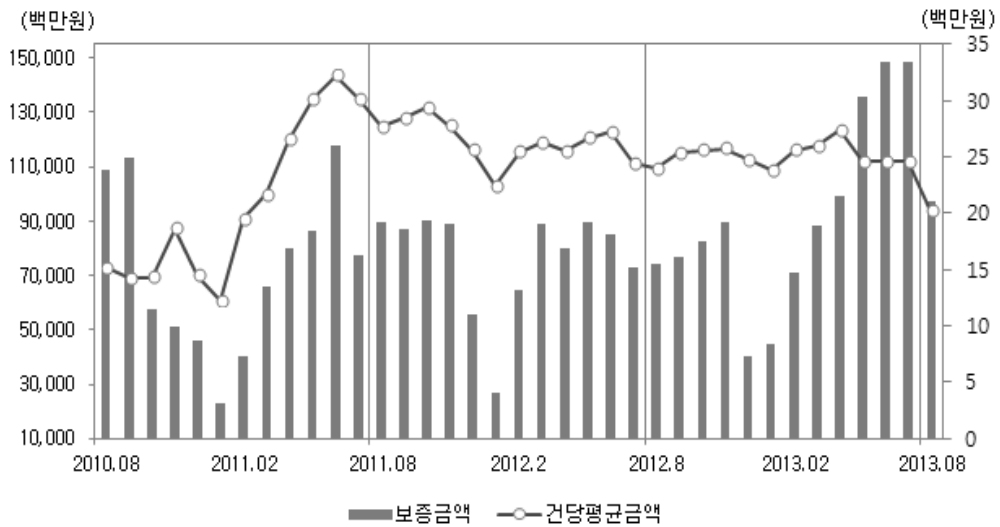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 서울의 8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97,269백만원, 4,817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34.6%, 34.2% 감소,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7.9%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31.1%, 55.3%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5.6%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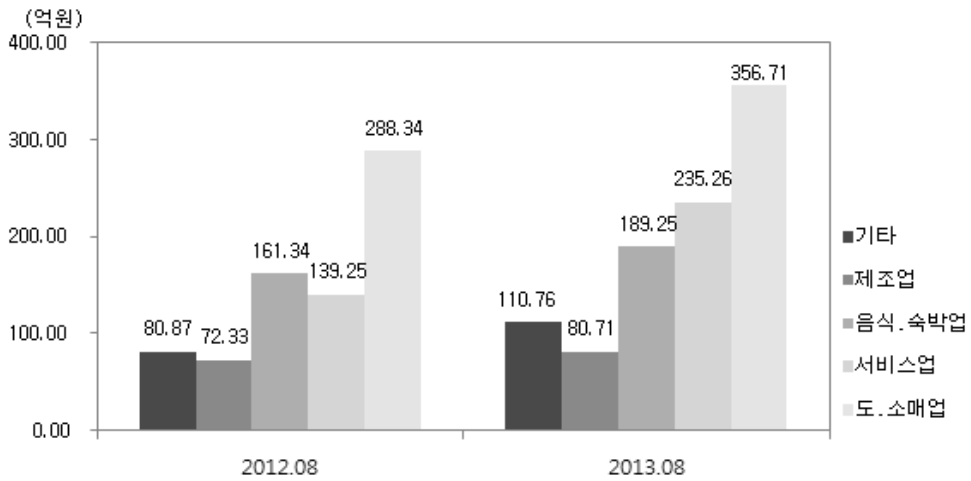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8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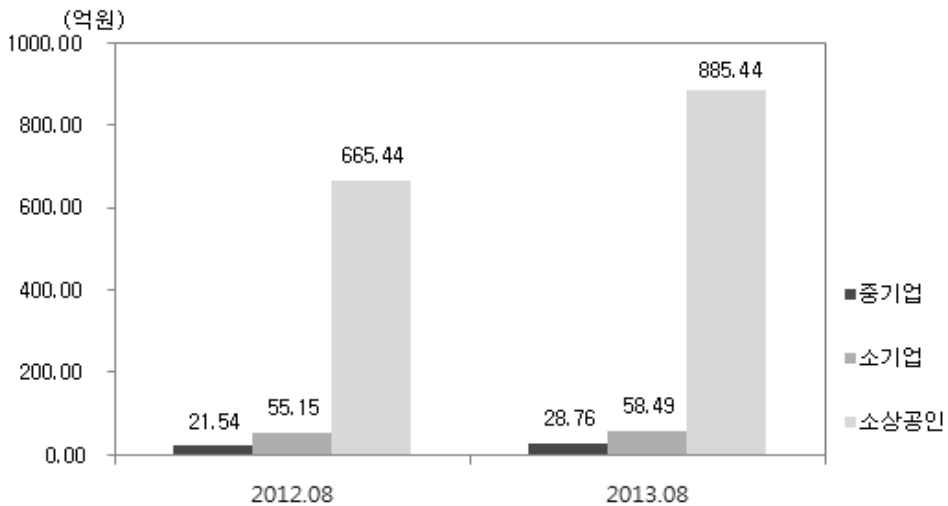
- 8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3%로 전월(8.4%) 대비 0.1%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6.7%로 전월(36.0%) 대비 0.7%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0%로 전월(6.6%)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6.5%로 전월(36.4%)대비 0.1%p 증가

■ 서울의 8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91.0%로 전월대비 0.9%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6.0%로 전월대비 0.7%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0%로 전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2.7%로 전월대비 0.2%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3.0%로 전월대비 1.2%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1.3%로 전월대비 0.5%p 증가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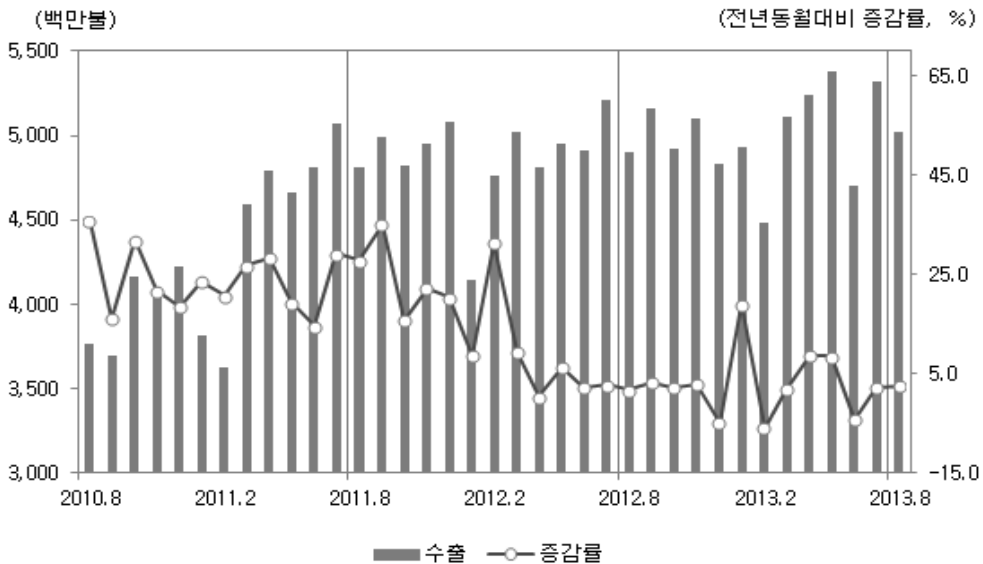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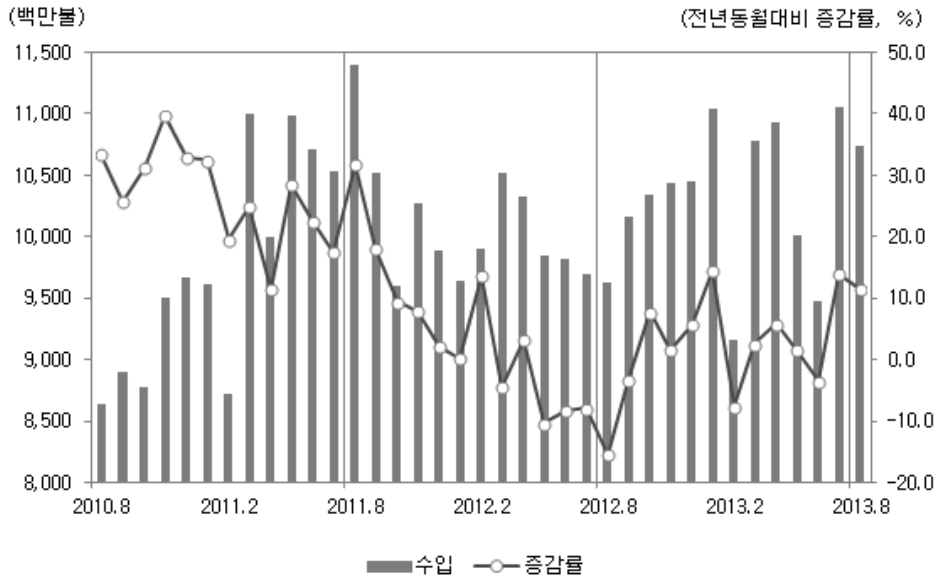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0.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였고 수입은 107.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63.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하였고 수입은 415.0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서울의 8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44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893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의류, 자동차, 컴퓨터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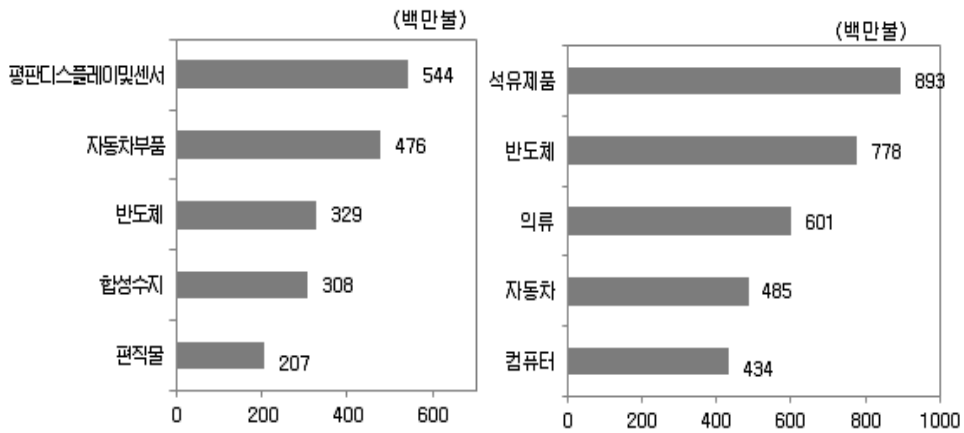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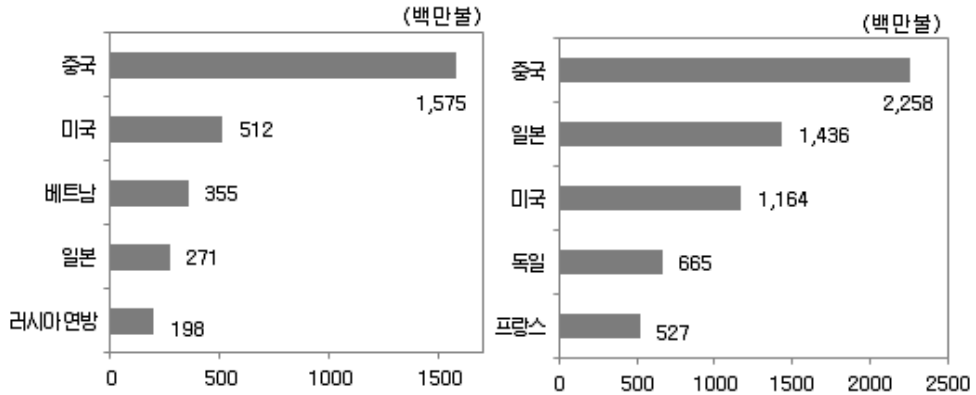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8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한 1,575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연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2,25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SEOUL ECONOMIC BULLETIN

부록: 통계표

부록
통계표

■ 생 산

■ 고 용

■ 부 동 산

■ 금 융

1. 광공업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2010=100>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2010	100.0	-	100.0	-	104.3	-	
2011	102.3	-	102.7	-	109.9	-	
2012	102.9	-	104.1	-	109.4	-	
2010.	2/4	96.4	103.7	95.1	103.1	92.9	95.6
	3/4	94.9	101.8	92.0	101.0	99.0	97.8
	4/4	110.0	102.3	108.8	100.4	104.3	100.9
2011.	1/4	107.3	103.0	111.5	103.8	99.8	101.9
	2/4	92.5	99.1	90.8	98.2	100.6	103.7
	3/4	98.6	105.5	97.2	106.7	107.8	106.2
	4/4	110.6	102.9	111.4	103.1	109.9	106.0
2012.	1/4	110.2	105.0	115.3	107.1	103.5	105.7
	2/4	94.7	102.6	95.6	104.2	102.6	105.9
	3/4	97.3	104.1	94.5	104.1	106.9	105.1
	4/4	109.6	103.4	111.1	103.5	109.4	106.0
2013.	1/4	102.5	98.2	110.2	102.8	106.9	109.3
	2/4	89.9	96.6	91.6	99.4	103.3	106.9
2011.	8	98.9	106.6	97.4	106.9	103.7	104.3
	9	103.9	106.2	103.0	107.3	107.8	106.2
	10	109.5	106.7	110.0	108.5	111.1	108.7
	11	106.9	101.0	104.4	97.8	110.6	106.9
	12	115.4	101.1	119.9	102.9	109.9	106.0
2012.	1	109.1	103.0	114.4	105.1	105.1	104.3
	2	108.7	106.9	115.1	109.7	101.1	102.4
	3	112.7	105.2	116.3	106.4	103.5	105.7
	4	98.7	103.2	101.7	105.0	102.5	104.4
	5	94.6	102.1	94.8	103.6	102.5	104.1
	6	90.8	102.6	90.3	104.1	102.6	105.9
	7	95.3	105.7	91.1	105.5	102.6	103.5
	8	97.8	105.3	96.1	105.7	103.7	104.5
	9	98.7	101.2	96.3	101.1	106.9	105.1
	10	105.9	103.1	104.9	103.2	110.3	107.9
	11	110.7	104.7	110.8	103.9	113.0	109.2
	12	112.2	102.3	117.5	103.5	109.4	106.0
2013.	1	107.1	95.3	114.6	99.8	106.4	105.0
	2	94.6	98.9	104.1	104.7	106.9	109.1
	3	105.8	100.3	112.0	103.9	106.9	109.3
	4	95.0	96.1	100.3	100.7	103.0	104.5
	5	90.0	96.0	86.8	94.4	105.2	106.7
	6	84.5	97.5	86.7	102.1	104.1	107.8
	7p	82.1	90.4	82.2	94.8	107.0	107.8
	8p	87.7	94.7	88.6	97.8	108.8	109.7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로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산업생산·출하·재고 증감률

<2010=100, 계절조정, 단위: %>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2010	-	5.2	100.0	-	6.7	100.0	-	1.3	104.3
2011	-	2.3	102.3	-	2.7	102.7	-	5.4	109.9
2012	-	0.6	102.9	-	1.4	104.1	-	-0.5	109.4
2010. 2/4	10.3	5.9	96.4	7.1	6.9	95.1	-5.2	-4.7	92.9
3/4	-1.8	-0.2	94.9	-2.0	1.8	92.0	2.3	-3.5	99.0
4/4	0.5	6.7	110.0	-0.6	6.9	108.8	3.2	1.3	104.3
2011. 1/4	0.7	8.8	107.3	3.4	7.1	111.5	1.0	1.0	99.8
2/4	-3.8	-4.0	92.5	-5.4	-4.5	90.8	1.8	8.3	100.6
3/4	6.5	3.9	98.6	8.7	5.7	97.2	2.4	8.9	107.8
4/4	-2.5	0.5	110.6	-3.4	2.4	111.4	-0.2	5.4	109.9
2012. 1/4	2.0	2.7	110.2	3.9	3.4	115.3	-0.3	3.7	103.5
2/4	-2.3	2.4	94.7	-2.7	5.3	95.6	0.2	2.0	102.6
3/4	1.5	-1.3	97.3	-0.1	-2.8	94.5	-0.8	-0.8	106.9
4/4	-0.7	-0.9	109.6	-0.6	-0.3	111.1	0.9	-0.5	109.4
2013. 1/4	-5.0	-7.0	102.5	-0.7	-4.4	110.2	3.1	3.3	106.9
2/4	-1.6	-5.1	89.9	-3.3	-4.2	91.6	-2.2	0.7	103.3
2011. 8	2.9	6.9	98.9	1.0	7.5	97.4	-0.7	4.9	103.7
9	-0.4	5.6	103.9	0.4	7.2	103.0	1.8	8.9	107.8
10	0.5	3.7	109.5	1.1	6.2	110.0	2.4	6.4	111.1
11	-5.3	-1.3	106.9	-9.9	-1.6	104.4	-1.7	6.6	110.6
12	0.1	-0.7	115.4	5.2	2.7	119.9	-0.8	5.4	109.9
2012. 1	1.9	-7.4	109.1	2.1	-8.0	114.4	-1.6	2.6	105.1
2	3.8	17.1	108.7	4.4	17.9	115.1	-1.8	1.4	101.1
3	-1.6	1.3	112.7	-3.0	3.2	116.3	3.2	3.7	103.5
4	-1.9	-0.7	98.7	-1.3	2.9	101.7	-1.2	0.9	102.5
5	-1.1	4.8	94.6	-1.3	7.7	94.8	-0.3	0.4	102.5
6	0.5	3.4	90.8	0.5	5.5	90.3	1.7	2.0	102.6
7	3.0	2.5	95.3	1.3	-0.1	91.1	-2.3	-1.5	102.6
8	-0.4	-1.1	97.8	0.2	-1.3	96.1	1.0	0.0	103.7
9	-3.9	-5.0	98.7	-4.4	-6.5	96.3	0.6	-0.8	106.9
10	1.9	-3.3	105.9	2.1	-4.6	104.9	2.7	-0.7	110.3
11	1.6	3.6	110.7	0.7	6.1	110.8	1.2	2.2	113.0
12	-2.3	-2.8	112.2	-0.4	-2.0	117.5	-2.9	-0.5	109.4
2013. 1	-6.8	-1.8	107.1	-3.6	0.2	114.6	-0.9	1.2	106.4
2	3.8	-13.0	94.6	4.9	-9.6	104.1	3.9	5.7	106.9
3	1.4	-6.1	105.8	-0.8	-3.7	112.0	0.2	3.3	106.9
4	-4.2	-3.7	95.0	-3.1	-1.4	100.3	-4.4	0.5	103.0
5	-0.1	-4.9	90.0	-6.3	-8.4	86.8	2.1	2.6	105.2
6	1.6	-6.9	84.5	8.2	-4.0	86.7	1.0	1.5	104.1
7p	-7.3	-13.9	82.1	-7.1	-9.8	82.2	0.0	4.3	107.0
8p	4.8	-10.3	87.7	3.2	-7.8	88.6	1.8	4.9	108.8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2013년 8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12.8	2013.7	2013.8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8,460	8,538	8,531	71	0.8
경제활동인구	5,259	5,337	5,294	35	0.7
(참가율)	(62.2)	(62.5)	(62.1)	(-0.1p)	-
남 자	2,984	2,979	2,974	-10	-0.3
(참가율)	(73.2)	(72.7)	(72.6)	(-0.6p)	-
여 자	2,275	2,358	2,319	44	1.9
(참가율)	(51.9)	(53.1)	(52.3)	(0.4p)	-
취 업 자	5,035	5,141	5,093	58	1.1
(고용률)	(59.5)	(60.2)	(59.7)	(0.2p)	-
농림어업	7	2	4	-3	-47.8
광공업	518	471	472	-46	-8.9
· 제조업	518	469	470	-49	-9.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510	4,668	4,618	108	2.4
· 건설업	352	340	321	-31	-8.8
· 도소매·음식숙박업	1,311	1,327	1,314	4	0.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31	2,098	2,088	57	2.8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17	903	895	78	9.5
실 업 자	224	196	201	-23	-10.4
(실업률)	(4.3)	(3.7)	(3.8)	(-0.5p)	-
비경제활동인구	3,201	3,201	3,237	36	1.1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2013년 8월 직업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12.8	2013.7	2013.8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5,035	5,141	5,093	58	1.1
직 업 별	관리자전문가	1,406	1,521	1,524	118	8.4
	사무종사자	1,053	1,081	1,034	-19	-1.8
	서비스·판매종사자	1,189	1,195	1,196	7	0.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2	5	7	-5	-43.8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75	1,339	1,332	-43	-3.1
성 별	남자	2,846	2,863	2,846	0	0.0
	여자	2,189	2,278	2,247	58	2.7
종 사 상 지 위 별	비임금근로자	1,145	1,108	1,099	-46	-4.0
	자영업주	980	945	937	-43	-4.3
	무급가족종사자	165	163	162	-4	-2.1
	임금근로자	3,890	4,033	3,994	104	2.7
	상용근로자	2,382	2,571	2,580	198	8.3
	임시근로자	1,110	1,109	1,080	-29	-2.6
	일용근로자	398	354	333	-65	-16.2
	일시휴직	115	82	142	26	22.9
취 업 시 간 대 별	36시간 미만	1,836	604	1,852	16	0.9
	1-17시간	304	198	266	-38	-12.6
	18-35시간	1,532	406	1,586	54	3.5
	36시간 이상	3,084	4,455	3,100	16	0.5
	36-53시간	2,226	3,333	2,270	44	2.0
	54시간이상	858	1,122	830	-28	-3.2
	일시휴직	115	82	142	26	22.9
	주당평균취업시간	39.3	44.4	39.0	-0.3	-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3. 취업자·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p>

연 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9.	10	4,840	-1.4	192	3.4	3,306	3.2	
	11	4,879	-0.4	216	11.3	3,248	1.8	
	12	4,877	0.5	208	6.6	3,261	0.7	
2010.	4	4,925	1.9	264	3.9	3,184	-1.2	
	5	4,995	2.9	219	-9.1	3,167	-1.7	
	6	4,988	2.0	221	-5.8	3,177	-0.7	
	7	5,013	3.1	234	-4.8	3,144	-2.4	
	8	4,962	3.6	223	-0.3	3,209	-3.4	
	9	4,960	3.3	225	5.1	3,210	-3.3	
	10	4,972	2.7	239	24.1	3,186	-3.6	
	11	4,981	2.1	213	-1.5	3,206	-1.3	
	12	4,998	2.5	224	7.3	3,184	-2.4	
	2011.	4	5,021	1.9	263	-0.2	3,125	-1.9
		5	5,074	1.6	243	11.1	3,097	-2.2
		6	5,098	2.2	236	6.7	3,079	-3.1
7		5,089	1.5	226	-3.5	3,093	-1.6	
8		4,962	1.4	223	1.7	3,141	-2.1	
9		4,979	1.4	223	107	3,141	-2.1	
10		5,024	1.0	210	-12.0	3,147	-1.2	
11		5,018	0.7	208	-2.4	3,150	-1.8	
12		4,971	-0.5	223	-0.3	3,181	-0.1	
2012.		1	4,925	0.2	241	-2.3	3,220	-0.8
		2	4,925	-4.0	287	13.0	3,168	-0.6
		3	4,991	0.2	253	-11.5	3,164	0.7
	4	5,061	0.8	233	-11.7	3,124	0.0	
	5	5,115	0.8	216	-11.1	3,099	0.1	
	6	5,105	0.1	226	-4.2	3,110	1.0	
	7	5,102	0.3	221	-2.0	3,130	1.2	
	8	5,035	0.1	224	-1.1	3,201	1.9	
	9	5,057	1.6	212	-8.3	3,197	0.6	
	10	5,043	0.4	188	-10.4	3,241	3.0	
	11	5,029	0.2	188	-9.4	3,264	3.6	
	12	5,027	1.1	178	-20.0	3,289	3.4	
2013.	1	5,011	1.7	204	-15.6	3,285	2.0	
	2	4,984	0.8	241	-16.0	3,283	3.6	
	3	4,999	0.2	265	4.7	3,251	2.7	
	4	5,073	0.2	226	-2.9	3,224	3.2	
	5	5,114	0.0	229	5.9	3,188	2.9	
	6	5,141	0.7	211	-6.5	3,188	2.5	
	7	5,141	0.8	196	-11.4	3,201	2.3	
	8	5,093	1.1	201	-10.4	3,237	1.1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주택매매가격 지수

<2013.3 = 100.0>

연 도	전국 주택매매가 격 종합지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7	88.0	96.9	93.9	100.3	102.5	97.8	106.9
2008	90.7	101.8	102.1	101.5	105.8	106.9	104.8
2009	92.0	104.5	104.1	105.0	108.5	107.9	109.0
2010. 1	92.1	104.6	104.2	105.1	108.6	107.9	109.1
2	92.4	104.9	104.3	105.5	108.9	108.0	109.6
3	92.6	105.0	104.4	105.5	108.8	108.0	109.6
4	92.8	104.9	104.3	105.5	108.7	107.7	109.5
5	92.9	104.7	104.1	105.3	108.3	107.4	109.0
6	92.9	104.3	103.7	104.9	107.6	106.7	108.5
7	92.8	104.0	103.4	104.5	107.1	106.1	107.9
8	92.7	103.6	103.1	104.1	106.6	105.7	107.4
9	92.8	103.4	102.8	104.0	106.3	105.4	107.1
10	93.0	103.3	102.7	103.9	106.1	105.1	107.0
11	93.4	103.2	102.6	103.8	106.0	105.0	106.9
12	93.8	103.3	102.6	104.0	106.1	105.0	107.0
2011. 1	94.2	103.4	102.7	104.2	106.3	105.1	107.3
2	94.9	103.7	102.8	104.6	106.6	105.3	107.7
3	95.9	103.9	103.1	104.8	106.7	105.4	107.9
4	96.7	104.0	103.2	104.8	106.7	105.4	107.8
5	97.3	104.0	103.2	104.8	106.7	105.4	107.7
6	97.8	104.0	103.2	104.7	106.5	105.4	107.5
7	98.2	103.9	103.2	104.6	106.4	105.2	107.3
8	98.7	103.9	103.1	104.6	106.2	105.1	107.2
9	99.2	103.8	103.1	104.6	106.1	105.0	107.1
10	99.6	103.8	103.0	104.5	106.0	105.0	106.9
11	100.0	103.7	103.0	104.4	105.8	104.9	106.6
12	100.2	103.6	102.9	104.3	105.6	104.8	106.4
2012. 1	100.3	103.5	102.8	104.1	105.5	104.7	106.1
2	100.5	103.4	102.8	104.0	105.3	104.6	105.9
3	100.7	103.3	102.7	103.8	105.1	104.4	105.6
4	100.8	103.0	102.5	103.5	104.6	104.1	105.0
5	100.8	102.8	102.4	103.3	104.3	103.9	104.7
6	100.8	102.6	102.2	103.0	104.0	103.6	104.3
7	100.7	102.2	101.9	102.5	103.4	103.1	103.7
8	100.6	101.9	101.7	102.2	103.0	102.8	103.1
9	100.4	101.5	101.4	101.6	102.3	102.3	102.3
10	100.3	101.1	101.0	101.2	101.7	101.6	101.7
11	100.2	100.9	100.7	101.0	101.3	101.2	101.3
12	100.2	100.6	100.6	100.6	100.9	100.9	100.9
2013. 1	100.1	100.4	100.4	100.4	100.5	100.6	100.5
2	100.0	100.2	100.2	100.2	100.3	100.3	100.2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0	99.9	99.9	99.9	99.9	99.8	99.9
5	100.0	99.9	99.8	99.9	99.8	99.7	99.9
6	99.9	99.7	99.6	99.8	99.6	99.5	99.7
7	99.9	99.5	99.4	99.6	99.3	99.1	99.4
8	99.9	99.3	99.1	99.5	99.0	98.7	99.2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2. 주택전세가격 지수

<2013.3=100.0>

연 도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아파트전세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7	75.7	76.8	77.9	75.7	74.7	75.9	73.7
2008	76.9	77.6	80.6	74.9	73.4	76.3	71.0
2009	79.5	82.3	83.8	80.8	79.3	80.4	78.4
2010. 1	79.8	82.6	83.9	81.3	79.7	80.6	79.1
2	80.3	83.2	84.4	82.0	80.5	81.1	80.0
3	80.8	83.8	85.1	82.5	81.1	81.9	80.4
4	81.3	84.3	85.6	83.0	81.5	82.3	80.8
5	81.7	84.5	85.8	83.2	81.7	82.5	81.1
6	82.0	84.6	85.8	83.4	81.8	82.5	81.3
7	82.2	84.7	85.8	83.5	81.9	82.4	81.5
8	82.5	84.9	86.0	83.9	82.1	82.5	81.7
9	83.0	85.5	86.5	84.5	82.6	83.0	82.3
10	83.7	86.3	87.2	85.4	83.6	83.9	83.3
11	84.6	87.0	87.7	86.3	84.5	84.6	84.4
12	85.2	87.5	88.1	87.0	85.2	84.9	85.3
2011. 1	85.9	88.4	88.8	87.9	86.1	85.8	86.4
2	87.3	89.9	90.4	89.4	87.9	87.8	88.0
3	88.9	91.1	91.8	90.5	89.5	89.8	89.3
4	89.9	91.7	92.3	91.1	90.1	90.5	89.8
5	90.7	92.1	92.6	91.5	90.4	90.8	90.0
6	91.3	92.5	92.9	92.1	90.8	91.1	90.6
7	92.0	93.3	93.6	93.0	91.8	92.0	91.7
8	93.0	94.5	94.7	94.2	93.4	93.6	93.2
9	94.3	96.0	96.3	95.8	95.5	95.8	95.2
10	95.1	96.9	97.2	96.6	96.5	97.0	96.0
11	95.6	97.1	97.5	96.7	96.7	97.5	96.2
12	95.7	97.0	97.4	96.6	96.6	97.3	96.0
2012. 1	95.9	97.0	97.5	96.6	96.5	97.3	95.9
2	96.3	97.3	97.7	96.8	96.7	97.5	96.1
3	96.7	97.5	98.0	97.0	96.9	97.8	96.3
4	97.1	97.6	98.2	97.0	97.0	97.9	96.2
5	97.3	97.6	98.3	96.9	96.9	97.9	96.1
6	97.4	97.6	98.3	96.9	96.9	97.8	96.1
7	97.6	97.6	98.2	96.9	96.8	97.8	96.0
8	97.7	97.6	98.3	97.0	96.8	97.8	96.0
9	98.0	98.0	98.6	97.4	97.3	98.2	96.6
10	98.5	98.5	98.9	98.0	98.0	98.6	97.4
11	98.9	98.8	99.1	98.5	98.5	98.8	98.2
12	99.1	99.0	99.1	98.9	98.7	98.9	98.6
2013. 1	99.3	99.2	99.3	99.2	99.0	99.0	99.0
2	99.6	99.6	99.5	99.6	99.5	99.4	99.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4	100.3	100.3	100.4	100.4	100.4	100.5
5	100.6	100.5	100.4	100.6	100.6	100.6	100.7
6	100.8	100.7	100.6	100.8	100.9	100.8	100.9
7	101.1	101.2	101.1	101.3	101.5	101.5	101.6
8	101.7	102.1	101.9	102.2	102.5	102.5	102.6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3. 2013년 8월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및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2013.3=100.0>

구 분	주 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3.3㎡당 매매가격
강 북 구	99.3	101.2	99.3	102.8	1,066.4
광 진 구	99.6	101.4	99.1	102.4	1,720.4
노 원 구	98.5	101.5	98.5	101.9	1,086.8
도 봉 구	98.9	102.6	98.5	102.4	999.1
동대문구	99.3	102.0	98.7	101.9	1,204.6
마 포 구	99.1	101.5	99.1	102.8	1,596.8
서대문구	99.4	102.6	99.5	103.7	1,212.3
성 동 구	98.7	103.4	98.2	103.7	1,614.8
성 북 구	99.4	102.3	98.8	103.5	1,191.9
용 산 구	97.9	102.3	98.2	101.8	2,315.3
은 평 구	99.6	101.7	98.8	103.3	1,196.5
종 로 구	99.9	100.8	99.4	101.5	1,620.5
중 구	99.6	101.7	99.3	102.1	1,647.7
중 랑 구	98.9	101.4	98.7	100.8	1,062.0
강 남 구	99.1	102.2	98.8	102.1	2,841.3
강 동 구	99.6	101.6	99.3	101.6	1,598.9
강 서 구	99.4	103.8	98.9	105.2	1,233.7
관 약 구	99.8	102.6	99.4	103.1	1,192.0
구 로 구	99.3	102.2	98.9	102.8	1,141.4
금 천 구	99.7	102.5	98.8	102.4	966.0
동 작 구	99.5	101.2	99.1	102.5	1,488.3
서 초 구	99.8	101.5	99.9	101.1	2,619.6
송 파 구	99.7	102.3	99.8	102.7	2,114.7
양 천 구	99.1	101.9	98.8	102.6	1,690.5
영등포구	99.1	102.1	99.2	102.8	1,511.3

주: 아파트 평당매매가 (단위: 만원/3.3㎡),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 114

1. 주요 금융지표

<기말, 단위:%,p>

연 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CD(91일)	콜금리	종합주가지수	환률(W/U\$)
2007	5.23	5.70	5.16	4.77	1,713.2	929.2
2008	5.27	7.02	5.49	4.78	1,529.5	1,102.6
2009	4.04	5.81	2.63	1.98	1,429.0	1,276.4
2010. 1	4.29	5.40	2.88	2.00	1,682.2	1,138.8
2	4.19	5.32	2.88	2.00	1,599.0	1,156.8
3	3.94	5.02	2.83	2.01	1,665.5	1,136.1
4	3.77	4.69	2.51	2.00	1,730.3	1,115.7
5	3.70	4.48	2.45	2.01	1,648.3	1,168.4
6	3.75	4.65	2.45	2.00	1,691.9	1,214.0
7	3.88	4.81	2.58	2.21	1,731.1	1,204.9
8	3.73	4.68	2.63	2.27	1,762.2	1,180.1
9	3.48	4.41	2.66	2.27	1,815.8	1,162.9
10	3.24	4.13	2.66	2.26	1,889.7	1,122.2
11	3.40	4.19	2.73	2.37	1,924.7	1,128.1
12	3.25	4.17	2.80	2.50	2,002.5	1,147.5
2011. 1	3.71	4.52	2.93	2.66	2,091.6	1,120.1
2	3.94	4.72	3.13	2.75	2,002.8	1,118.1
3	3.74	4.54	3.35	2.92	2,002.6	1,122.4
4	3.74	4.54	3.40	3.01	2,153.1	1,086.8
5	3.66	4.44	3.46	3.02	2,121.8	1,083.5
6	3.65	4.40	3.53	3.21	2,074.6	1,081.3
7	3.77	4.48	3.59	3.26	2,150.0	1,059.5
8	3.57	4.29	3.59	3.25	1,869.4	1,073.1
9	3.45	4.24	3.58	3.25	1,790.9	1,118.6
10	3.47	4.29	3.58	3.24	1,825.8	1,155.4
11	3.39	4.24	3.56	3.26	1,858.8	1,132.3
12	3.36	4.24	3.55	3.26	1,863.2	1,147.5
2012. 1	3.37	4.24	3.55	3.26	1,891.0	1,145.8
2	3.43	4.25	3.53	3.25	2,003.2	1,123.4
3	3.55	4.36	3.54	3.25	2,023.4	1,125.9
4	3.50	4.25	3.54	3.25	1,995.9	1,135.5
5	3.38	4.01	3.54	3.26	1,886.4	1,154.3
6	3.29	3.87	3.54	3.26	1,848.6	1,165.5
7	3.01	3.60	3.34	3.08	1,826.8	1,143.4
8	2.83	3.40	3.19	3.00	1,918.9	1,131.7
9	2.81	3.31	3.14	2.99	1,961.3	1,124.8
10	2.78	3.30	2.93	2.80	1,942.2	1,106.9
11	2.80	3.32	2.85	2.75	1,904.7	1,087.5
12	2.85	3.30	2.88	2.75	1,973.8	1,077.0
2013. 1	2.75	3.20	2.86	2.76	1,986.1	1,065.4
2	2.70	3.06	2.83	2.75	1,979.9	1,086.7
3	2.60	2.95	2.81	2.74	1,990.2	1,102.2
4	2.55	2.91	2.80	2.75	1,938.9	1,121.8
5	2.59	2.96	2.72	2.55	1,974.5	1,110.7
6	2.87	3.24	2.69	2.49	1,884.4	1,135.2
7	2.91	3.38	2.68	2.48	1,871.8	1,127.2
8	2.94	3.33	2.66	2.50	1,897.0	1,117.0

자료: 한국은행

2.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어음부도율

<단위: 개, %>

연 도	신설법인수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서울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7	20,063	1,606	1,674	16,555	0.01	735
2008	18,133	1,717	1,520	14,865	0.02	977
2009	20,401	3,081	1,402	15,838	0.02	741
2010. 1	1,812	286	150	1,360	0.03	51
2	1,633	248	132	1,247	0.03	38
3	2,044	342	158	1,539	0.02	48
4	1,946	283	141	1,513	0.03	41
5	1,669	257	120	1,286	0.03	45
6	1,871	300	126	1,438	0.03	42
7	1,850	313	122	1,412	0.03	56
8	1,686	264	104	1,310	0.04	58
9	1,485	243	85	1,148	0.03	49
10	1,699	277	99	1,319	0.02	48
11	1,847	257	122	1,458	0.02	51
12	1,938	299	103	1,524	0.01	64
2011. 1	2,000	283	138	1,566	0.01	26
2	1,501	222	104	1,165	0.02	45
3	2,055	222	131	1,677	0.02	51
4	2,021	258	131	1,671	0.03	53
5	1,844	209	132	1,489	0.02	53
6	2,046	282	116	1,633	0.04	40
7	1,918	277	120	1,512	0.01	45
8	1,752	244	95	1,401	0.01	45
9	1,597	203	85	1,301	0.01	35
10	1,767	217	84	1,459	0.01	40
11	1,804	228	111	1,452	0.01	53
12	2,181	340	121	1,708	0.01	54
2012. 1	1,939	236	117	1,578	0.01	30
2	2,200	292	145	1,738	0.01	37
3	2,167	275	134	1,742	0.01	35
4	2,165	243	137	1,667	0.02	37
5	2,186	253	148	1,775	0.01	32
6	2,182	303	130	1,736	0.01	34
7	2,273	343	123	1,789	0.02	33
8	1,961	254	115	1,582	0.02	37
9	1,949	263	113	1,565	0.01	44
10	1,903	225	103	1,561	0.02	40
11	1,972	248	86	1,625	0.03	33
12	1,871	240	92	1,529	0.02	40
2013. 1	2,283	325	133	1,809	0.02	30
2	1,850	230	99	1,512	0.01	31
3	2,099	263	119	1,706	0.01	31
4	2,078	277	118	1,670	0.02	39
5	2,140	279	129	1,721	0.02	29
6	1,947	300	113	1,518	0.01	20
7	2,267	360	122	1,770	0.01	38
8	2,065	246	126	1,683	0.01	33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3.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 분	2013년			전월비	
	6월	7월	8월	증감	증감률
서울 계	1,947	2,267	2,065	-202	-8.9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계	16	15	10	-5	-33.3
제조업 계	300	360	246	-114	-31.7
음.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34	42	29	-13	-31.0
섬유 및 가죽	60	71	49	-22	-31.0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9	12	6	-6	-50.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	10	14	4	40.0
고무 및 화학제품	44	65	33	-32	-49.2
기계, 금속	32	39	27	-12	-30.8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2	92	55	-37	-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7	4	6	2	50.0
기타 제품제조업	24	25	27	2	8.0
건설업 계	113	122	126	4	3.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3	8	6	-2	-25.0
건설업	110	114	120	6	5.3
서비스업 계	1,518	1,770	1,683	-87	-4.9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5	2	1	-1	-50.0
도매 및 소매업	477	518	469	-49	-9.5
운수업	29	39	44	5	12.8
숙박 및 음식점업	51	43	49	6	14.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287	336	333	-3	-0.9
금융 및 보험업	193	209	215	6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99	113	120	7	6.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0	279	261	-18	-6.5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76	104	83	-21	-20.2
교육서비스업	37	59	57	-2	-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5	4	-1	-2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21	30	17	-13	-43.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21	33	30	-3	-9.1

자료: 중소기업청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8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8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8월 서울시 소비자물기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3년 8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3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3년 8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3년 8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3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8월 소비자물기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3년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서울경제 주요기사목록 (2005년 3월호 ~ 2013년 9월호)

2005년

3월호 | 권두칼럼: 우리 모두 소임을 다하자(조순)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정병순)

4월호 | 권두칼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공병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박희석)

5월호 | 권두칼럼: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 공간(박삼욱) | 경제포커스: 서울시 산학연협력의 실태와 시사점(신창호) |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제도약 및 향후 발전방안(김선웅, 김경배, 윤형호, 조지선)

6월호 | 권두칼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김정호) | 경제포커스: 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설문조사(박희석, 안지선, 최태림) | 2005년 하반기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7월호 | 권두칼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근본적 이해(윤현덕) |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정창무) |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방향(김현아)

8월호 | 권두칼럼: 문화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김형국)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의 현황 및 육성정책(박위진) |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마케팅 전략(라도삼, 박종구, 이종규, 공자원)

9월호 | 권두칼럼: 청계천 복원사업의 리더쉽과 신한류(황기연)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임희지) |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이영성) |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도심 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박희석, 이승지)

10월호 | 권두칼럼: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김진호) | 경제포커스: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박희석) |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오승구)

11월호 | 권두칼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김성진) | 경제포커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한정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안(홍순영)

12월호 | 권두칼럼: 8.31 부동산세제 평가(나성린) | 경제포커스: 8.31대책과 주요쟁점들(서승환) | 2006년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2006년

1월호 | 권두칼럼: 윤리경영, 환경경영(조동성) |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윤형호)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박희석, 홍나미) | 자치구경제이슈: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성린)

2월호 | 권두칼럼: 수도권외의 경쟁력(왕연균) | 경제포커스: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김경환) |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정희윤) | 자치구경제이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전성근)

3월호 | 이달의 이슈: 최근 서울 경기 행방은 어디로...(박희석) | 경제포커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II(정병순) |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전(박래현) | 자치구 경제이슈: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오근)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신창호) | 경제포커스: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윤형호) |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이병민) | 자치구 경제이슈: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석근)

5월호 | 이달의 이슈: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정병순) | 경제포커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최경규) |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김상일)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동직)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신창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동기) | 전문가 의견조사: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세계 속의 서초를 향하여(황인식)

7월호 | 이달의 이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송용일) | 경제포커스: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최경규) | 한국기술평가의 현황(양동우) | 자치구 경제이슈: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유근)

8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환경과 지역가치(라도삼) | 경제포커스: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구문모) |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강남지역의 특성(주정재) | 자치구 경제이슈: 「첨단업무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성용)

9월호 | 이달의 이슈: 학교선택권 확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박정수) | 경제포커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김진영) |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방안(안중석) | 자치구 경제이슈: 「우량기업 유치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임일영)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성장동력인가?(김철원) | 경제포커스: 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찬동) |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박종구) | 자치구 경제이슈: 「레저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이기)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김은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윤형호) |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최경규)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윤병구)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신창호) | 경제포커스: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정병순) |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윤형호, 임석) | 심층의견조사: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별발전 전략(정경효)

2007년

2007년부터 서울경제 발행일이 <매월말일 당월호>에서 <매월말일 익월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호는 발간되지 않으며, 2007년 1월 말일 발간되는 서울경제는 <서울경제 2월호>로 표기됩니다.

2007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재생의 방향(오병호) | 경제포커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양재섭, 김정원) |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신성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금융기관대출금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오피스시장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용중)

2007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고령자 취업정책(황진수) | 경제포커스: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윤형호)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김은희) | 생생리포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변신(강현주) | 자치구탐방: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김영수)

2007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블루오션,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박정일) | 경제포커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김남현) |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크(원용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윤·박희석) | 자치구

탐방: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축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재형)

2007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유병규) | 경제포커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오천수)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정병순) | 생생리포트: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경숙)

2007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김철원) | 경제포커스: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김기용) | 서울시 컨벤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진홍석) | 생생리포트: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 을 꿈꾸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축진지구 개발」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이동명)

2007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윤보) | 경제포커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전인우)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신창호)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희·박희석) | 자치구탐방: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내원)

2007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과제와 비전(조경엽) | 경제포커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부경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조항문) | 생생리포트: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강현주) |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박지희) | 자치구탐방: 합리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봉구의 발전방안(최영수)

2007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차문중) | 경제포커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고준성) | 한미FTA 체결협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김범수)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권장오)

2007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환타지경제시대의 경쟁력과 디자인경영(정경원) | 경제포커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을 꿈꾸는 월드디자인플라자(신창호)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디자인(최두은) | 생생리포트: '가능성에 올인' 애니메이션산업을 키운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유경림)

2007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공연예술산업(김문환) | 경제포커스: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장광렬) |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박용재) | 생생리포트: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주윤중)

2007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다양성 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안정숙) | 경제포커스: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장동찬) | 서울시 드라마 산업(고정민) | 생생리포트: 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여덕수)

2008년

2008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도시 서울(김경환) | 경제포커스: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하여(최재현) |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홍석기)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김상호)

2008년 2월호 | 달의 이슈: 외국인 100만 시대의 외국인력정책(박영범) | 경제포커스: 외국인고용 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유길상) | 외국인력 정책과제(이규용)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구자선)

2008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장윤중) | 경제포커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이홍식) | 외국인직접

투자-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전영제)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mmobiz) 기업 현황(박희석·권태구) | 자치구탐방: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기순)

2008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통합적 도시브랜드로서의 디자인서울(박영순) | 경제포커스: 도시브랜드를 위한 통합 디자인(장동원) | 디자인 서울(윤종영) | 생생리포트: 국제 곡물 가격 추이(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고광득)

2008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이유(전택수)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옥성수) |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라도삼) | 생생리포트: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황필성)

2008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Carbonomics'의 미래(김정인) | 경제포커스: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고준호)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망과 서울에서의 의의(이부형) | 생생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예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윤영표)

2008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자영업의 현황과 인프라(이상현) | 경제포커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과제와 정책방향(전인우) | 자영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손민중) | 생생리포트: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지역 자영업의 위험성(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상권 살리기(김재형)

2008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박승록) | 경제포커스: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고유가와 민생대책(이달석) | 생생리포트: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응전략(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첨단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동욱)

2008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외식업 활성화대책 및 육성방안(김태희) | 경제포커스: 외식업 창업지원 현황과 과제(이경희) |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윤남수) | 생생리포트: 경기도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김태두)

2008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전방향(김영인) | 경제포커스: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김민자)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방안(조익래)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가치 「양재 R&D」 밸리 조성을 통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허익봉)

2008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이주선) | 경제포커스: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임준) | 서울시 의료관광 현황과 방향(윤형호) | 생생리포트: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강동구 집단에너지(CES) 공급사업(임수근)

2008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사회통합 과제(최경수) | 경제포커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이부형) |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 3業 2助(김선빈)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김용중)

매달 제공되던 생생리포트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009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박희석) | 경제포커스: 2009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방향(김선홍)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선인명) | 생생리포트: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폭 증가(조달호이춘화)

화) | 자치구탐방:삼각산 관광티운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정종규)

2009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물 산업 동향과 서울의 수도사업 발전방향(권형준) | 경제포커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 산업 경쟁력 방안(윤형호) | 물 산업 측면에서 서울의 여건과 발전방향(윤주환)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김백곤)

2009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서울시의 방향(김정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활력형 녹색성장 촉진 방안(이정택) | 서울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박병욱) | 자치구탐방: “상봉지구 재정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봉로)

2009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녹색성장시대 지식 기반 제약산업 글로벌화(김성수) | 경제포커스: 바이오기술경영 및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추진방향 고찰(김문기) |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방향(이상규) | 생생리포트: 서울시 녹색성장 효율성 평가(조달호·이준화) | 자치구탐방: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진호)

2009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산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전망과 서울시의 대응방안(부경진) | 경제포커스: 녹색도시를 위한 서울시 그린카 활성화(고준호) | 녹색성장을 위한 LID조명 발전방안(주대영) | 자치구탐방: 서대문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심규표)

2009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변양규)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윤형호) |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허재준) | 자치구탐방: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제도 운영(배영철)

2009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과 과제(김창석) | 경제포커스: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양재섭·장남중·권미리) | 서울시 뉴타운산업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왕건) | 자치구탐방: 노원, 전국 최고 도시를 꿈꾸다(권장오)

2009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온라인 게임산업과 서울시의 전략(위정현) | 경제포커스: 대한민국 게임산업, 그리고 새로운 10년(장현영) | 게임한류의 성과(김민규) | 자치구탐방: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례(박경호)

2009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여건과 과제(최생림) | 경제포커스: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윤형호) |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김창래) | 자치구탐방: 용산 전자유통단지 발전 및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영환)

2009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그리고 서울(김찬화) | 경제포커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여재천) |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의 역할(윤수영)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김은혜)

2009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장제) | 경제포커스: 지식기반도시를 향한 서울의 R&D 전략(문경일) |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의 R&D 사례와 시사점(이지평)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용순)

2009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개방화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정희운) | 경제포커스: 수도권 광역경제권 효율적 네트워킹 전략(김찬동) |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권의 시사점(김영수) | 자치구탐방: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컬처노믹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이미령)

2010년

2010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디자인노믹스의 등장과 서울의 대응전략(라도삼) | 경제포커스: 디자인을 꿈꾸고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최성호) | 도시명과 관련 상징물을 고려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홍석기)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양성태)

2010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무선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김성태) | 경제포커스: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임상수) | 국내 IT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과제(김민성) | 자치구탐방: 종로, 지역의 역사가 곧 문화컨텐츠(최용순)

2010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령자 가계 재정 분석(윤형호) | 경제포커스: 실버산업:인구고령화의 기회(김신영) |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임춘식) | 자치구탐방: 금융뉴타운 조성을 통한 중구 브랜드 가치 제고(우상길)

<이달의 이슈>와 <경제포커스>로 구성되었던 서울경제가 4월호부터는 <이달의 이슈>로 통합되어 제공되며, <생생리포트>는 격월로 게재됩니다.

2010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 |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정선희)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특성분석(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 초석 다지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김태두)

2010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김찬동) | SSM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김유오) | 자치구탐방: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동수)

2010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의 시사점(박호정) |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진상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안·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동대문구 2IC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사업(이종인)

2010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융합시대의 IT산업의 방향(이성호) | 산업융합의 대두와 발전전략(서동혁) | 자치구탐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종인)

2010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향(문경일)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안재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분석(박희석·오동훈·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김백곤)

2010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전환기의 서울경제, IT산업의 재도약과 IT융합산업(정병순) |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과제(김진형) | 자치구탐방: 마포의 성장 동력 4대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황중익)

2010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취업의 발전방안(조연숙) | 서울의 경력단절과 향후 과제(오은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 분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상영)

2010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지식기반체 조업의 역량강화 방안(김범식) |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에서의 지식기반 제조업의 발전방향(송재용) | 자치구탐방: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김찬식)

2010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김묵한) |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창현) | 생생리포트: 상업공간으로서의 서울의 길(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센터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오태섭)

2011년

2011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은 글로벌 메가 시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변미리) | 글로벌 메가 시티의 현황과 전망(정재영)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기호)

2011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신경희) |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조선주)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이판수)

2011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 MICE 산업의 미래와 과제(반정화) | MICE 산업의 트렌드 및 대응과제(주영민) | 기업탐방: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 SR센

터(조달호·정규진) | 자치구탐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이판수)

2011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산업관광 훑어보기 (김복한) |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김상태) | 생생리포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박희석·한진아)

2011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광고산업 변화(이종관) | 한미 FTA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한상필) | 기업탐방: U-Healthcare 분야에서 비트컴퓨터의 역학(조달호·정규진)

2011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이갑수) | 1인창조기업의 시대를 맞아(안남우) | 생생리포트: 서울시 도매업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박희석·양승희)

2011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용취약계층과 유연근무제 활성화(김태홍) | 서울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진준순) | 생생리포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박희석·한진아) | 서울지역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박희석·한진아)

2011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10%의 기업이 4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김선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조호정)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메디컬(박희석·양승희)

2011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한미 FTA와 서울시 정책과제(김도훈) |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성한경)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MICE산업(박희석·한진아)

2011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신상영) |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박정현) |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박희석·오동훈)

2011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노영진) |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서울시의 과제(임형준)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한류문화콘텐츠 산업(박희석·양승희)

2011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이찬영)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효율과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홍승아) | 생생리포트: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제전망(박희석·오동훈)

2012년

2012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김동열)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이은애) | 생생리포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박희석·한진아)

2012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OECD 국가 중 국내 물가가 높은 이유(임희정) |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용선) | 생생리포트: 서울 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김복한·김범식) |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정종석) | 생생리포트: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박희석·곽지원)

2012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 기능성에 대한 탐색(나도삼) | 현사례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송기철) | 생생리포트: 서울, 시장(市場),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풍경(박희석·한진아)

2012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김재현) | 지역문제 해결은 마을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박학룡) | 생생리포트: 작지만 강한 힘,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박희석·곽지원)

2012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농업: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김태곤) |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이강오) | 생생리포트: 서울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김동환) | 건강한 주택시장을 향한 제언(홍미영) | 생생리포트: 2012년 서울, 청년취업생들의 초상(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2012년 하

반기 서울경제 전망(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층의 구인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불일치 분석 및 해소방안(김영생) |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김영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여성 CEO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실업자 추이 및 청년 실업률(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업규모별 발전특성 및 시사점(이종욱)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협동조합금융의 제언(김자봉) | 생생리포트: 서울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선식품 및 소비자물가 추이 | 2012년 상반기 서울 가계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 아메니티 형성과 도시문화정책의 방향(용호성) | 서울시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권영돈) | 생생리포트: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2012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 | 서울 아파트 평당 (3.3m) 전세가격과 증가율(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의 대형마트, SSM의 영업제한제도 시행현황 및 상생협력(강희은) |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김범식) | 생생리포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 | 서울 자영업체 상위 5개 업종과 자치구별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남기철) |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정성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마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지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추이 | 서울시민 주거형태와 전세자금 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013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김경혜) | 중산층의 변화와 대응(김용기) | 생생리포트: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

지 활성화 방안(최동욱)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규 구인·구직 직종(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남윤형) |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통한 서울시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노희봉) | 생생리포트: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박승돈)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석유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동주) | 생생리포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안해칠)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전력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박덕배) |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배준식) | 생생리포트: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고정민) |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라도삼) | 생생리포트: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전 프로젝트'(김재목) | 인포그래픽스: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곽대중) | 저에너지건물 보급, 무엇이 문제인가?(김민경) | 생생리포트: 서울, 주점보다 커피전문점(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R&D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김연배) | 기업의 R&D 아웃소싱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박문수)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서울신용보증재단) |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창조경제 시대의 빅 데이터(정우수) | 빅 데이터와 공공 정책(전승우) | 생생리포트: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김태홍) | 인포그래픽스: 서울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어르신 적합 직종 개발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정은하) |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고령화 문제(윤민석) | 생생리포트: 기능과 미학의 경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김희영) | 서울 사회적기업(서울경제분석센터)